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황 인 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아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2019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보육학전공

김 미 연

영아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황 인 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보육학전공

김 미 연

인 준 서

김미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영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 및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 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영아의 연령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는 어떠한가?
3. 영아의 성별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는 어떠한가?
4.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 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5.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 양상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1세와 만2세 영아 3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영아들의 기질과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대한 설문지를 영아들의 담임교사가 평정하는 조사 연구를 하였다. 연구도구는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Plomin(1984)

이 개발한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척도를 한세영, 박성연(1996)이 변안하여 사용하고 김병화(2017)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어린이집 낮잠양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Taggart(2003)이 개발한 CSWSn(Children's Sleep Wake Scale-nap version)척도를 임민영(2016)이 사용한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Briggs-Garter, Jones와 Little(2003)가 개발한 ITSEA(Infant Toddler Social-Emotional Assessment)척도를 신지연(2014)이 변안하여 사용하고 노혜환(2017)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긍정, 상호작용행동 문항을 빼고 내면적 문제행동과 외현적 문제행동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t검증과 Pearson 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영아의 기질의 5점 척도 기준으로 볼 때 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 사회성 기질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6점 척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 수면유지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5점 척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내면적 문제행동에서의 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외현적 문제행동에서의 활동·충동성, 공격·반항성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 어린이집 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의 차이는 만 1세가 만 2세에 비해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많이 나타났으며, 활동성 기질은 만 2세가 만 1세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사회성 기질은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수면 중 각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만 2세가 만 1세보다 낮잠의 시작에서 수면 중 각성 과정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차이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내면적 문제행동에서 만 1세가 만 2세보다 분리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고, 외현적 문제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성 기질, 활동성 기질, 사회성 기질,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수면종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보다 어린이집 낮잠시간이 끝나고 수면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내면적 문제행동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외현적 문제행동에서는 활동.충동성과 공격.반항성이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낮잠양상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낮잠 양상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의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수면 중 각성, 낮잠시작, 정서성 기질, 활동성 기질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내면적 문제행동에 대해서 수면 중 각성, 정서성 기질, 낮잠시작, 활동성 기질, 사회성 기질이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낮잠시작, 활동성 기질, 수면 중 각성, 정서성 기질은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8
1. 영아의 기질	8
1) 기질의 개념과 유형	8
2) 기질의 중요성	10
2. 어린이집 낮잠	12
1) 영아의 수면	12
2) 어린이집 낮잠의 중요성	13
3.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15
1)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개념 및 중요성	15
2)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관련 변인	17
III. 연구방법	20
1. 연구 대상	20
2. 연구 도구	21
3. 연구 절차	25

4. 자료 분석	25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7
1.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	27
2.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차이	29
3. 영아의 성별 따른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차이	33
4.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	37
5.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44
V. 논의 및 결론	53
1. 논의	53
2. 결론 및 제언	63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 영아 일반적인 특성	20
〈표 2〉 영아의 기질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1
〈표 3〉 영아의 어린이집 낮잠양상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3
〈표 4〉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척도 문항내용, 문항구성, 신뢰도	24
〈표 5〉 영아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25
〈표 6〉 영아의 연령에 따른 영아 기질의 차이	26
〈표 7〉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차이	27
〈표 8〉 영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	28
〈표 9〉 영아의 성별에 따른 영아 기질의 차이	32
〈표 10〉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차이	34
〈표 11〉 영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	36
〈표 12〉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간의 관계	38
〈표 13〉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	40
〈표 14〉 어린이집 낮잠양상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	42
〈표 15〉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내면적 문제행동 미치는 영향	46
〈표 16〉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외현적 문제행동 미치는 영향	49
〈표 17〉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미치는 영향	5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과거에 비해 영아 시기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다. 생의 이른 시기부터 주 양육자와 분리되어 낯선 어린이집에서 적응해 나가야 하는 영아들은 가족이 아닌 교사와 또래친구들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윤세영, 2017). 영아기는 주 양육자의 관심과 양육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생의 이른 시기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부모와의 분리불안 및 내재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이후 여러 가지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향, 이소은, 2014).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사회적으로 방해가 되는 행동을 겉으로 표출이 되는 외현적 문제행동과 정서적·사회적 문제행동으로 위축된 내면적 문제행동 말한다(Achenbach & Edlbrock, 1983). 외현적 문제행동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을 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행동이며, 내면적 문제행동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정서를 억누르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서소정, 2009). 영아기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들은 대부분 사라지지만 심한 문제행동은 유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제행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윤조, 김성현, (2016)은 내면적 문제행동은 스트레스를 억누르다가 공격적으로 표출되어 또래와의 사회관계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외현적 문제행동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영아의 기질적 특성요인과 관련된다. 활동·충동성과 공격·반항성 등 외현적 문제행동은 까다로운 기질특성이 영향을 미치며(정

미라, 강수경, 최은지, 2014), 활동성 기질과 적응성이 낮고 수줍음이 높은 기질특성은 영아의 위축행동과 부적응행동 등의 내면적 문제행동과 관련이 높다(송진영, 송진숙, 2015; 이찬숙, 이현자, 2008). 또한 활동성 기질이 높고 반응에 민감한 영아는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며(전미경, 2003),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아는 분노가 높고 참을성이 매우 낮으며 위축과 두려움을 많이 보이며(송혜선, 2005), 결국 어린이집 생활에서 또래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성이 결여된 문제를 보이게 된다(임원신, 2006).

또한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수면의 양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유아들은 낮잠에서 일찍 깨어나거나 수면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외현적 문제행동 및 내면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김윤희, 2018). 이처럼 유아들은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할 때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박세미, 2017), 영유아의 수면의 양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양상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진욱, 2015), 이와 같이 영아의 기질과 낮잠양상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아의 문제행동은 그들의 기질 특성 및 낮잠 양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영아의 수면 양상은 개별 영아마다 차이를 보이며 기질적 특성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다(Fullard, McDevitt, & Carey, 1984; Fox & Field, 1989). 영아의 수면주기가 불규칙하고 까다로운 기질 영아는 기본생활습관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자극이나 욕구의 좌절에 대한 반응 강도가 강하며(하영례, 고경필, 2007). 영아들이 기질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다(노희영, 2014). 남아의 경우, 활동성이 높고 생리규칙성이 낮을수록 수면문제가 생기며 여아는 적응성이 낮고 생리규칙성이 낮을수록 수면문제가 나타난다(장미경, 2007). 또한 낮잠시간에 수면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높고 의도적인 통제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Sadeh, Gruber & Raviv, 2002), 유아기 불규칙한 수면패턴은 또래관계나 어린이집 생활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l-Sheikhet al., 2013). 수면주기의 불규칙성도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을 높이며 불규칙한 수면주기에는 영아의 개별적인 기질특성이 영향요인이 된다(황선영, 오재연, 김경란, 남민우, 2012). 이처럼 수면 양상은 기질적 특성과 상관이 있으며 특히 늦은 수면시간이 부정적인 정서성 기질과 결합될 때, 내면적 문제행동과 외현적 문제행동의 발생을 높이게 된다(Cremone, A. et al., 2017).

이와 같이 영아의 기질과 수면양상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때, 영아의 개별적인 기질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면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영아시기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지금에는 영아의 개별적 기질특성과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양상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낮잠시간 운영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의 낮잠환경은 가정에 비해 영아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주, 2012). 어린이집 낮잠시간 동안 교사들은 먼저 깨어난 영아에게 관심과 놀이를 제공하게 되며 어린이집의 이러한 낮잠 환경은 영아들이 충분히 잠자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Gimpel, G, A , & Holland, M, L., 2007). 부모들의 불규칙한 하원 시간으로 낮잠을 자다가 하원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며, 교사 한 명이 상호작용해야 하는 영아의 수가 많은 어린이집 특성으로 대다수 학급에서 강압적인 낮잠시간이 운영되기도 한다(이슬기, 2008). 결국 어린이집 낮잠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영아들은 수면이 부족해지고(한진규, 2003), 행동이나 기분의 변화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 피곤과 짜증을 자주 낸다(Lavery, 2003). 이처럼 영아의 낮잠상황에서의 어려움이 영아의 사회·정서적인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임민영, 2016) 어린이집에서의 영아의 낮잠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영아기는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중요한 시기로, 0-2세 표준보육과정에서도 별도로 ‘기본 생활 영역’을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육아정책

연구소, 2013a). 기본생활영역의 내용 중 식사와 수면, 휴식은 어린이집에서 매일 일어나는 주요일과인 동시에 영아의 건강과 발달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은 영유아의 휴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표준보육과정, 2013). 이러한 영아 낮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부모들의 인식은 그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기보다는 다른 활동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슬기, 2008). 또한 어린이집 교사들도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을 위해 낮잠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이슬기, 2008), 낮잠 시간 동안 부모에게 보내는 알림장을 작성하거나 보육활동 계획, 어린이집 회의 등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가희, 2014). 이처럼 학부모와 교사들은 어린이집 하루 일과에서 낮잠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낮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아들이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는 개별적으로 낮잠을 자야 하지만 어린이집 상황의 특성상 대부분 함께 잠을 잔다. 낮잠시간동안 자신의 수면 리듬이 맞지 않거나 잠들기 위한 지원이 맞지 않을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되며 기질이 까다로운 영아들은 매우 예민하며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도 잠을 자주 깬다(노희영, 2014). 그래서 낮잠시간의 수면을 미루거나 교사를 자주 부르는 모습을 보이며(소가희, 2014), 무기력하게 보이는 행동과 짜증을 자주 내며(Bates, Viken, Alexander, Beyers, & Stockon, 2002: 김진욱, 2015: 재인용) 영아가 낮잠을 푹 자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아들의 개별적인 기질 특성에 따른 낮잠 양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낮잠 시간 운영이 필요하며, 영아의 낮잠의 질이 불규칙하고 불안할 때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 및 어린이집 낮잠양상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영아의 사

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영아의 기질과 낮잠양상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안정된 낮잠시간 운영 및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 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영아의 연령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는 어떠한가?
3. 영아의 성별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는 어떠한가?
4.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 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5.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 양상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영아의 기질

기질은 유전적이고 성격의 특성이며 행동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매우 높은 안정성을 갖는다(Buss, Plomin, 1975).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을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세 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Buss, Plomin, 1984), 기질의 하위영역으로 정서성은 영유아가 환경 자극에 부정적 반응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고, 활동성은 영유아의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행동의 속도를 말하며, 사회성은 영유아가 타인과 함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2) 어린이집 낮잠양상

어린이집 낮잠은 낮잠의 양과 낮잠의 질로 구성되며 낮잠시작, 수면시작, 수면유지, 수면 중 각성, 수면종료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Taggart, 2003; 임민영, 2016: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낮잠양상을 어린이집에서의 하루일과 중 낮잠시간에 보여지는 영아의 낮잠을 자는 모습과 행동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집 낮잠 양상의 하위영역은 낮잠시작, 수면시작, 수면유지, 수면 중 각성, 수면종료로 구분한다.

3)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사회적으로 방해가 되는 행동을 겉으로 표출이 되는 외현적 문제행동과 정서적·사회적 문제행동으로 위축된 내재적 문제행동 말한다. 외현적 문제행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으로서 공격성, 과잉행동,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을 말하며, 내면적 문제행동은 내면 안에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서 겉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으로서 외로움, 위축, 불안, 우울증, 두려움 등의 정서적 문제행동을 의미한다(Achenbach & Edlbrock, 1983; Achenbach, McConaughy, Howell, 1987).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 분리 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의 내면적 문제행동과 활동·충동성, 공격·반항성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으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아의 기질

1) 기질의 개념 및 유형

기질이란 개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얼굴, 키, 신체의 특성, 지문 등이 다르듯이 각기 다른 개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독특함이 개인의 기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질은 외부적 자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행동양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개별적이며 유전적인 성향을 의미한다(신희남, 2011). 그러나 기질은 유전적이며 성격의 한 부분으로 외부의 환경에 의해 변화 될 수 있으며 환경적인 외부의 요인과 영아의 기질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진다(한지현, 이영환, 2005). 기질이란 생물학적으로 길으로 보이는 반응 및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나며, 이는 출생부터 개인의 정서성이나 기본적인 행동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천희영, 1992). 즉, 영유아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반응하는 행동과 정서적 반응이며(Thomas, Chess, 1977), 영아가 성장 한 후에도 성격에 기본이 되는 것이고(Buss, Plomin, 1975), 기질은 유전적이며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한 성숙의 과정이 거치면서 성격의 일부로 발달된다고 하였다(Rothbart, Bates, 1998). 기질은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들로 인해 바뀔 수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개별적 성향이 외부적 자극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othbart, 1981).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질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차이는 있지만 기질은 유전적인 개인적 특성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 및 외부의 요소로 인하여 기질은 변할 수 있다고 살펴볼 수 있다.

Thomas와 Chess(1977)는 1956년부터 시작된 New York 종단연구에서 모든 아동은 출생 후부터 개인차를 있음을 인식하고 개인차는 성장하여도 계속된다고 보고 하였다. 기질은 환경 또는 새로운 상황을 대처하는 행동 방식을 말하며, 기질의 구성차원은 활동수준, 접근성, 반응강도, 기분, 적응성, 지구성, 주의 분산도, 규칙성, 반응의 9개 영역들로 더 나아가 3개의 영역으로 까다로운 기질과 순한 기질, 느린 기질로 설명하였다.

기질이란 유전적인 성격의 특성이며, 행동을 조성하는 요인이며 매우 높은 안정성을 가진다고 하였다(Buss, Plomin, 1975).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Buss와 Plomin(1984)은 기질을 세 가지 특성으로 구분하고 기질의 하위영역으로 정서성은 영유아가 환경자극에 부정적 반응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고, 활동성은 영유아의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행동의 속도를 말하며, 사회성은 영유아가 타인과 함께 있는 정도를 정의하였으며 기질 영역 중에서 충동성은 유전적 성향이 낮게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 기질 영역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고하였다(Buss, Plomin, 1984).

Garside(1975)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어머니에게 영유아가 매일 보이는 행동을 질문을 하여 기질을 4개 영역으로 정의 하였다. 하나, 위축-낮은 적응성-의존성이다. 이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늦게 하고 낮은 장소와 낮은 사람을 피하려고 하며 부모에게 심하게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높은 활동성-반응 강도-낮은 유순성이다. 이는 활동량이 많고 경렬하게 반응하고 보챌 때 양육자가 달래어주어도 쉽게 가라앉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의 기질특성은 하루 동안에 부정적 기분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양육자에게 짜증과 심술을 자주 내는 것이며, 다음으로 식사 시간이나 수면시간에 불규칙한 것으로 기질적 특성을 설명 하였다.

Rothbart와 Derryberry(1981)는 기질의 구성영역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미소와 웃음, 활동수준, 달랠 수 있는 정도, 규제에 대한 고통, 두려움, 지속성향 등으로 자기조절에서의 개인차를 기질을 설명하였다. Rothbart(1981)는 기질 영역 중에

서 활동수준과 미소와 웃음은 Thomas와 Chess(1968) 기분 영역, Buss와 Plomin(1975)의 감정성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Rothbart(1981)의 두려움은 새롭거나 긴장된 자극으로 정서적인 반응의 정도로 Thomas와 Chess(1968)의 접근성과 적응에, Buss와 Plomin(1975)의 사회성과 중복된다고 하였다. Rothbart(1981)의 달랠 수 있는 정도는 달래어서 울음이 멈출 수 있는 정도로서 Thomas와 Chess(1968)의 주의분산도와 Buss와 Plomin(1975)은 감정성에 해당하였다.

Rothbart(1981)의 규제에 대한 고통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의 고통의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Thomas와 Chess(1968)의 연구에는 하위영역이 없으며, Buss와 Plomin(1975)은 기질 영역에서 감정성으로 설명 되어 있다고 하였다. Rothbart(1981)의 지향지속은 Thomas와 Chess(1968)의 지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Rothbart(1981)는 Thomas와 Chess(1968)의 영역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어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Buss와 Plomin(1975) 또한 Thomas와 Chess(1968)의 9개 영역의 내용이 단일요인으로 통합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며 더 적은 수의 영역으로 기질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Rothbart, 1981: 이순영, 임춘금, 2007: 재인용). 이와 같이 기질 특성 및 구성된 하위 영역들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개인마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특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기질의 중요성

기질은 어린 연령 일수록 기질적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질이 영아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김난실, 조혜진, 2007) 영아의 개인차로 부터 드러난 외현적 문제행동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변인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다(김수정, 곽금주, 2011) 기질의 구성영역 중에서 활동성이 높은 기질은 우울이나 불안이 낮고 반면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과

잉행동을 보이는 외현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며(김은경, 2009) 사회성이 낮은 유아는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외현적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며(김연숙, 2007; 이찬숙, 현은자, 2008)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고 부정적인 기분을 많이 보이는 기질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예측 해주는 요인으로 보고 하였다(황혜정, 2016) Thomas와 Chess(1977)가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이 정서 및 행동문제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고 하였으며, 영아의 낮은 적응성은 외현적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김민희, 2010). 또한 나양균(2006)은 영아의 불규칙한 적응성과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문제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영아의 사회성 기질과 주의 집중성은 교사와 영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교사와 영아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형희, 최경순, 2001).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영아의 부정적인 기분과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외현적 문제행동이 나타나며 규칙성과 적응성이 낮을수록 내면적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질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경계, 위축, 행동억제와 같은 기질 요소들은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며, 성인의 성격에서 차이를 예측할 수 있다(David, shaffe, 2005). 기질은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지라도 기질의 중요한 요소들은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goldsmith, buss, lenery, 1997). 또한 기질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치며, 사회 환경은 부정적 기질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uss, Plomin, 1975).

이와 같이 기질은 개인마다 다른 독특한 성향으로 관련 변인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특성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기질은 관련된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질적 특성이 긍정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어린이집 낮잠

1) 영아의 수면

영아의 수면의 단계는 성인과는 다르게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급속 안구 운동(rapid eye movement: REM) 수면과 다른 하나는 비급속안구운동(non rapid eye movement: NREM) 수면이다. 보통 어른에게는 REM 수면이 25% 정도를 이지만 영아에서는 REM 수면이 거의 50%를 차지한다(사쿠라이 다케시, 2018). 영아에게 REM 수면이 많은 이유는 영아는 감각기관을 통해 받는 외부 자극이 대뇌피질에서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며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조결자 외, 1999). 일반적으로 수면주기는 NREM 수면을 거쳐 REM 수면으로 넘어가며 이러한 과정은 수면시간 동안 4-5회 반복된다(강영희, 2008). 영유아의 수면주기는 3단계로 구분하며, 첫 번째 잠들기 단계에서 영아는 몸의 리듬이 느려지면서 편안한 자세와 습관을 취한다.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수면단계로서 NREM수면과 REM수면 단계를 거치게 된다. 세 번째 과도기 단계는 잠을 깨거나 새로운 수면주기로 넘어가는 시간을 말한다(이순례 외, 2001).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침서(2013)에서는 낮잠의 기본 단계는 크게 잠들기 단계와 수면 단계로 구분하고, 그다음 과도기 단계로 구분이 된다. 잠들기 단계는 몸의 리듬이 느려지며, 편안한 자세와 몸짓을 취하는 잠을 준비하는 단계로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 두번째 수면단계는 크게 NREM 수면단계와 REM 수면단계로 구분하고, NREM 수면단계는 육체적인 피곤으로 회복되며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REM 수면단계는 신체는 극도로 이완되어 있으나 뇌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정신적인 피곤으로부터 회복되는 단계이다. 마지막 과도기 단계는 영유아가 깰 준비가 되어있는 단계로 영유아는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NREM 수면은 전체 수면의 70-80%를 차지하며 기운을 회복하

는 기능을 하며(강영희, 2008), 성장호르몬이 NREM 수면의 단계 동안에서 분비되며, 적은 NREM 수면단계 기간을 가지는 아동은 수면장애 시달리며 성장에 지연을 보이게 되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Carr, 1999). REM 수면 단계는 호흡이 불규칙하고 근육이 이완되고 뇌는 활발히 움직여 피의 흐름이 증가하여 뇌 성장과 기억 인지발달에 강화된다(조성희, 2002). 따라서 영아가 충분한 낮잠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사나 부모등 성인은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영아 수면의 특징을 살펴볼 때, 낮잠은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에서도 회복시켜주며, 영유아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여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슬기, 2008).

이처럼 영아의 수면특성은 성인과 다른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아의 안정된 수면이 신체적인 피로 외에도 정신적인 피로에서도 회복시켜주며, 성장 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어린이집 낮잠의 중요성

낮잠이란 24시간 하루 중 낮 시간에 자는 것으로 부족한 수면을 채워주며 낮 동안 휴식을 갖는 수면을 의미한다 즉, 낮잠은 영유아기의 하루일과 중 부족한 수면을 보충해주며 활동의 중간 휴식을 취하여 다음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다(류경희, 2012). 영아의 낮잠시간은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낮잠을 실시하며 낮잠과 휴식을 위해서는 영유아의 심리적으로 건강하며 교사와 영유아 간의 애착이 주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건강과 성장발달을 이루며 교사와 함께 영아는 낮잠을 준비하며 기초적인 기본생활습관을 기른다(표준보육과정, 2013a). 영유아는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안전할 때, 다른 환경과 주위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는 영유아가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

는 기초가 되며(교육과학기술부, 2013),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반드시 낮잠 시간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보육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p192). 낮잠은 크게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Taggart, 2003). 영아의 낮잠의 양과 질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간수면의 양보다 야간수면의 양이 문제행동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김윤희, 2015). 연령이 높을수록 주간수면시간과 전체수면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욱, 2013). 영유아의 수면의 질과 부정적, 공격성, 행동조절문제와 관계가 있으며(유수옥, 2002). 영유아기 수면 문제는 만 9세까지의 수면문제와 정서조절 및 정서행동조절문제의 지속과 심화를 초래한다(Thorpe et al., 2015). 낮잠시간에는 좀 더 영아의 생리적 타이밍을 고려해야 한다. (노희연, 2014). 영아의 생체리듬은 오전 9시부터 상승하다가 오전 11시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며 점심식사 이 후 영아들은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며 휴식과 낮잠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영아는 반복적인 하품을 하거나 교사에게 기대거나 교사를 자주 부르거나 짜증을 내는 등 다양한 요구를 한다(이용주, 2004). 또는 영아는 자신의 피곤을 잊어버리고 흥미 있는 일과 놀잇감에 집중하게 되면 자지 않고 버티는 경향이 있으므로 휴식과 낮잠을 교사나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최민수, 2001). 하지만 교사의 대다수는 낮잠을 보육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외의 시간으로 생각한다(소가희, 2013).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오후 일과 활동 중 씻기, 배변 활동, 급간식 시간에는 자조 기술이 부족한 영아를 개별적으로 돌보는 과정에서 교사는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미숙, 2008). 교사는 영아들의 발달적 특성과 요구에 맞춰 어린이집의 일상생활을 차근 차근 지도해야 하며 개인차가 심한 영아들을 보살펴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만 영아들의 낮잠을 재울 때 안정된 수면으로 이어지도록 몇 분간 기다려주는 교사의 행동과 관심이 필요하다(권혜진, 2013).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어린이집에서의 영아의 낮잠은 부족한 수면을 보충해주는 역할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통한 교사와의 관계 개선 및 긍정적 행동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낮잠시간을 어린이집에서의 중요한 일상으로 이해하고 영아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낮잠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3.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1)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개념 및 중요성

영아는 출생 후 처음으로 부모로부터 관계를 맺으며 자기가 속해 있는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과 행동양식을 통하여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자기 위치를 찾아 그에 알맞은 역할을 수행 해가며(오수경, 2010), 사회적 기술을 터득해 사회·정서발달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윤세영, 2017). 영아는 자기를 포함한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경험을 통해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영아는 발전해나가며 나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간다(김혜원, 2007). 사회정서발달은 영아의 애착, 또래간의 사회관계 그리고 영유아교육기관과 학교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심숙영, 2013). 그러므로 영아기에 사회·정서적 행동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유아기의 사회·정서적 행동까지 예견할 수 있다(Briggs & Carter, 2001). 요즘 들어 부모 이외 교사, 또래친구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아들이 종종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아가 가정 또는 보육기관에서 부적응행동 나타나며 주 양육자와 교사 또는 다른 영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행동을 볼 수 있으며 이를 사회·정서적문제행동이라고 정의한다(신지연, 최석란, 2005).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크게 내면적 문제행동과 외현적 문제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의 내면적 문제행동과 활동성·충동성, 공격성·반항성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으로 하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Briggs-Gowan & Carter, 2001; 신지연, 2004: 재인용). 내면적 문제행동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지나치게 억눌러서 나타나며, 외현적 문제행동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여 나타나게 된다(김 향, 이소은, 2014). 외현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에서 활동·충동성은 주의산만 및 과잉행동을 의미하며 과잉행동은 일반적인 힘이 넘치고 위험한 행동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며 충동성이란 자신의 감정,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행동억제 능력의 결여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공격·반항성은 공격성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힐 의도를 가진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이며,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반항성을 의미한다(남옥선, 2007). 내면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에서 위축은 스스로 움츠러드는 아동에게 나타나는 사회 부적응 행동이며, 우울·위축은 힘이 없고 우울해 보이고 슬퍼 보이는 태도를 말한다(이희정 외, 2016). 분리불안은 애착대상을 향하여 부르는 행동, 찾는 행동, 또는 우는 행동으로 표현하게 된다(조희복, 2014).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는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사람 또는 새로운 상황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주재란, 2015). 영아기에 사회·정서가 발달한 경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또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사회·정서가 발달되지 못한 경우에는 또래친구에게 많이 거부되며, 점점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다양한 활동의 흥미와 성취가 낮게 나타난다(조해연, 2014). 그런데 영아기의 발달 과정은 문제행동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차가 매우 크다(신지연, 2002). 현대사회에서는 영아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보다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윤세영, 2017). 보육시설에서 보육 받는 영아들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관한 연구들은 대다수 가정양육과 영아기에 타인양육을 받는 집단 간 비교연구들로 보육을 받는 영아들이 가정보육을 하는 영아보다 더 많이 울고, 투정을 부리고, 힘들어하는 행동들이 자주 보였다(Balleyguier, 1988). 만 1세-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관하여서 외현적 문제와 내면적 문제행동 발

생하는 요인으로 보육교사 변인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며, 문제가 보고된 남아의 경우 외현적 문제와 내면적 문제 모두 1년 후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여아의 경우에는 내면적문제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며 외현적 문제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 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문제행동의 안정성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윤현수, 강지현, 오경자, 2011).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행동으로 영아의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기게 되는 부적응 행동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영아기의 외현적 문제행동을 그대로 방치가 되면 유아기와 아동기 까지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재은, 2007). 또한 내면적 문제행동도 잠재된 스트레스를 공격적으로 표출하여 또래와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 이후의 삶과 생활에도 미친다고 하였다(박운조, 김성현, 2016).

이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다양한 행동 특성으로 표출되며 이러한 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은 이후의 발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관련 변인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살펴보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변인으로 영아의 기질, 연령과 성별 및 애착 등에 대한 내적 변인(김수정, 곽금주, 2007; 김연숙, 2005; 김은경, 2009; 김지윤, 2007; 이정주, 2013; 천희영, 1992)과 교사변인, 부모의 양육태도, 보육시설경험 등과 같은 외적인 변인(김은진, 2009;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송진숙, 권희경, 2003; 윤세영, 2017; 정미라, 강수정, 최은지, 2014; 정미숙, 2007; 최현희, 김경숙, 2016)으로

구분하고 있다. 내적인 변인 중에서 기질은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강한 영아는 낮은 환경에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양육자 관계에서도 쉽게 짜증을 낼 가능성이 높으며(김수정, 곽금주, 2007). 사회성 기질이 낮은 유아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이 보이며(김연숙, 2005; 김지윤, 2007). 활동성이 높은 기질 유아는 충동적이고 과잉행동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김은경, 2009). 외적인 변인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걸음마기 영아의 발달특성상 자기주장이 강해지므로 부모와 갈등이 증가하여 양육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으며(김은진, 2009), 2-3세 영아가 4-5세 유아보다 외현적문제행동이 더 나타났으며 2-3세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영아들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발달특성을 부모가 이해가 부족했을 때 양육스트레스를 받거나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양육특성을 가지게 된다(정미라, 강수경, 최은지, 2014). 최근 우리나라의 핵가족화와 취업모의 증가로 어린이집에서의 영아 보육이 이루어지면서 어린이집 보육 경험도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관한 변인으로(윤세영, 2017; 최현희, 김경숙, 2016)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면도 사회 및 정서문제행동 관련 변인 연구로 제기되고 있다(황혜정, 2001). 유아의 좋지 않은 수면의 질이 우울이나 불안을 일으키며 주의집중, 공격성과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으며(도현주, 2008; 유수옥, 2012), 유아의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공격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박세미, 2017). 수면 부족으로 인해 공격성과 불안이 증가하여(김인자, 2001), 영유아는 졸음과 무기력한 행동을 보이며 짜증과 변덕을 부리게 된다(Levary, 2001), 또한 유아의 어린이집 주간수면은 빠른 낮잠시작과 문제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영아의 부족한 가정의 야간수면이 영아의 어린이집 수면양상을 불규칙하고 불안하게 형성이 되어진다(김윤희, 2015; 김진욱, 2013). 어린이집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주간수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진욱, 2013), 가족특성 영향의 변인으로 맞벌이 가족과 전문직을 종사하는 부모가 늦게 잠들기 때문에 영

아는 수면의 양이 적고 불규칙하며(김유라, 이경숙, 2011), 어머니의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영아의 수면의 질이 낮다고 보고 하였다(배정인, 2014; 이나경, 2005).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관련 변인으로 영아의 성별, 기질 등의 내적인 변인,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변인, 보육시설 경험 등의 외적인 변인 그리고 수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수면의 양과 질 그리고 어린이집 낮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의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1세, 2세 영아 3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영아들의 담임교사가 영아들의 기질과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평정자로 참여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 350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315부의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한 30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영아 일반적인 특성 (N=300)

구분	n	%	
연령	만1세	148	49.3
	만2세	152	50.7
성별	남아	163	54.3
	여아	137	45.7
합계	300	100	

표 1 제시된 연구대상 영아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 300명 중 영아의 성별은 남아 163명(54.3%), 여아 137명(45.7%)으로 남아가 더 많으며 영아의 연령은 만 1세 148명(49.3%), 만 2세 152명(50.7%)으로 이다.

2. 연구도구

1) 영아의 기질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영아 기질 척도(EAS;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한세영, 박성연(1996) 번안하고 김병화(2017)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질문이 모호하거나 교사가 평정하기 적절하지 못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문항수정은 2번 ‘잘 운다’를 ‘자주 우는 편이다’로, 9번 ‘아이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좋아한다’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로, 10번 ‘낮선 이와 잘 친해진다’를 ‘낮선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한다’로, 13번 ‘외톨이다’를 ‘혼자서 놀이하고 지내는 편이다’ 수정하였다. 본 도구는 기질의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의 기질 검사도구는 교사가 평정하여 Likert 5점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 하도록 되어있다. 각 기질의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성, 사회성, 활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영아의 기질 검사도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영아 기질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정서성	1-6	6	.91
사회성	7-15	9	.80
활동성	16-20	5	.80
전체		20	.82

2) 어린이집 낮잠 양상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낮잠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Taggart(2003)가 개발한 낮잠용 수면 각성 척도 (CSWSn -Children' Sleep Wake Scale-nap version)를 임민영(2016)이 변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 중에서 교사가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양상으로 평정하기에 어려운 질문 4문항을 제외하고 총 41문항을 사용하였다. 제외한 문항내용은 '낮잠시간이 시작되고 아동이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걸리는 시간(낮잠을 이루는 시간)을 적어주세요', '눕고 나서 잠이 들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적어주세요', '자다가 깬을 때 다시 잠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적어주세요', '잠에서 완전히 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적어주세요'이다. 본 도구는 낮잠 시작, 수면 시작, 수면 유지, 수면 중 각성, 수면 종료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의 조작적 정의는 낮잠 시작은 영아가 수면을 준비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수면의 시작은 각성상태에서 수면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수면유지는 수면 주기 동안의 수면의 질을 의미하며, 수면 중 각성은 수면 중 깨어난 후에 다시 잠드는 것을 의미하며, 수면 종료는 수면주기가 끝나고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일어나는 능력을 의미한다 (Taggart, 2003: 임민영, 2016, 재인용). 영아의 어린이집 낮잠 양상 측정도구는 교사가 평정하며, Likert 6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 '항상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수면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영아의 어린이집 낮잠양상 검사도구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아의 어린이집 낮잠양상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낮잠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1	.89
수면시작	12 13* 14* 15* 16* 17* 18 19*	8	.77
수면유지	20* 21* 22* 23 24 25* 26	7	.61
수면 중 각성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0	.88
수면종료	37 38 39 40 41*	5	.85
전체		41	.86

*는 역 채점 문항임

3)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Briggs-Garter, Jones와 Little(2003)가 개발한 영아기 사회정서발달 측정도구('Infant Toddler Social -Emotional Assessment':ITSEA)를 신지연(2004)이 번안하여 사용하고 노혜환(2017)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하위영역 중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영역을 제외하고 내면적 문제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영역의 45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중에서 질문이 모호한 문항들은 일부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3번 '많이 웃는다'를 '자주 웃는다'로, 28번 '항상 움직인다'를 '쉬지 않고 움직이는 편이다'라고 수정하였다. 본 도구는 내면적 문제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사가 Likert 5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각 하위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내면적 문제행동	우울·위축	1-7	7	.91
	일반적 불안	8-15	8	.91
	분리불안	16-20	5	.92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21-24	4	.91
	소계		24	.92
외현적 문제행동	활동·충동성	25-30	6	.95
	공격·반항성	31-45	15	.96
	소계		21	.97
전체			45	.96

3. 연구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될 검사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8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서울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2곳과 직장어린이집 1곳의 만1세반 담임교사 7명, 만2세반 담임교사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연구 결과 교사가 평정하기 모호한 질문을 수정하거나 어린이집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은 삭제하여 검사도구를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검사도구는 유아교육 전문가 및 경력 15년 이상과 20년 이상의 영아반 교사 2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최종 검사도구를 완성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1세-만 2세 영아를 선정하였으며, 영아들의 담임교사가 영아들의 기질과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대한 평정자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에게 연구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동의한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는 어린이집 요청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 전자설문지등의 방식으로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부 후 1~2주 후에 연구자가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회수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315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낮잠을 자지 않는다'로 응답한 설문지 5부와 응답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300부를 최종 분석하여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연령,성별)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도구의 문항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a*)를 산출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영아의 기질 및 어린이집 낮잠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영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 양상, 영아의 사

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영아의 기질 및 어린이집 낮잠 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표 5와 같다.

〈표 5〉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하위영역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및 하위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 (N=300)

하위영역		범위	M	SD	
기질	정서성	1.00-5.00	3.36	.97	
	사회성		3.04	.58	
	활동성		3.32	.64	
어린이집 낮잠양상	낮잠시작	0.00-5.00	3.28	1.10	
	수면시작		2.90	1.02	
	수면유지		1.84	.78	
	수면 중 각성		3.23	1.00	
	수면종료		2.91	.58	
전 체			2.83	.59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내면적 문제행동 전체		2.17	.69	
	우울·위축		2.01	.66	
	일반적인불안	1.00-5.00	1.65	.81	
			분리불안	2.35	.96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2.68	1.00
	외현적문제행동 전체		2.13	.98	
	활동·충동성	1.00-5.00	2.39	1.10	
공격·반항성		1.87	.95		
전 체			2.15	.72	

첫째, 영아 기질의 일반적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서성 3.36점($SD=.97$) 사

회성 3.04점($SD=.58$) 활동성 3.32점($SD=.64$)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는 정서성 기질, 사회성 기질, 활동성 기질이 5점 척도 기준의 평균으로 볼 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집 낮잠양상 전체평균은 2.83점($SD=.59$)이며 6점 척도 기준의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낮잠시작($M=3.28$, $SD=1.10$)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면 중 각성($M=3.23$, $SD=.1.00$), 수면종료($M=2.91$, $SD=.58$), 수면시작($M=2.90$, $SD=1.02$), 수면유지($M=1.84$, $SD=.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의 어린이집에서의 전체적인 낮잠양상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며 규칙적으로 볼 수 있지만, 낮잠시간 동안 깊이 잠을 자게 되는 수면유지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전체 평균은 2.15점($SD=.72$)이며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내면적 문제행동 전체 평균은 2.17점($SD=.69$)이며, 내면적 문제행동 하위 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M=2.68$, $SD=1.00$), 그 다음으로 분리불안($M=2.35$, $SD=.96$), 우울·위축($M=2.01$, $SD=.66$), 일반적인 불안($M=1.65$, $SD=.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는 내면적 문제행동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를 행동을 많이 나타내며, 분리불안, 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 행동 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외현적 문제행동 전체 평균은 2.13점($SD=.98$)이며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외현적 문제행동 하위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활동·충동 2.39점($SD=1.10$), 공격·반항 1.87점($SD=.95$)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는 공격·반항성 행동보다 활동·충동성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1)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 차이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성 기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 차이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 차이 (N=300)

하위영역	만1세	만2세	t
	(n=143)	(n=152)	
	M(SD)	M(SD)	
정서성	15.17(4.35)	14.05(3.80)	2.37*
사회성	13.63(3.01)	14.45(2.78)	-2.45
활동성	24.28(5.41)	24.94(5.09)	-1.07*

* $p < .05$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성 기질은 만 1세 ($M=15.17$, $SD=4.35$), 만 2세($M=14.05$, $SD=3.8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37$, $p < .05$). 즉, 만 1세 영아가 만 2세 영아보다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성 기질은 만 1세 ($M=13.63$, $SD=3.01$), 만 2세($M=14.45$, $SD=2.7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활동성 기질은 만 1세

($M=24.28$, $SD= 5.41$), 만 2세($M=24.95$, $SD=5.0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07$, $p<.05$). 즉, 만 2세 영아가 만 1세 영아보다 더 활동성 기질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 차이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 차이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낮잠양상 전체는 만 1세($M=2.76$, $SD=.47$), 만 2세($M=2.82$, $SD=.4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어린이집 낮잠양상 하위영역별 차이로 수면 중 각성은 만 1세($M=2.91$, $SD=.90$), 만 2세($M=3.12$, $SD=.8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97$, $p<.05$). 즉, 만 2세 영아가 만 1세 영아보다 어린이집 낮잠 시간 동안 잠에서 깨었다가도 다시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낮잠시작은 만 1세($M=3.22$, $SD=1.14$), 만 2세($M=3.33$, $SD=1.0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수면시작은 만 1세($M=3.00$, $SD=.93$), 만 2세($M=2.81$, $SD=1.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수면유지는 만 1세($M=1.77$, $SD=.74$), 만 2세($M=1.90$, $SD=.8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수면종료는 만 1세($M=2.91$, $SD=.57$), 만 2세($M=2.92$, $SD=.5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표 7〉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차이 (N=300)

하위영역	만1세 (n=143)	만2세 (n=152)	t
	M(SD)	M(SD)	
낮잠시작	3.22(1.14)	3.33(1.06)	-.86
수면시작	3.00(.93)	2.81(1.11)	1.52
수면유지	1.77(.74)	1.90(.82)	-1.41
수면 중 각성	2.91(.90)	3.12(.88)	-1.97*
수면종료	2.91(.57)	2.92(.58)	-.07
어린이집 낮잠양상 전체	2.76(.47)	2.82(.48)	-.96

* $p < .05$

3) 영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

영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내면적 문제행동의 분리불안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영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차이를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영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전체의 차이를 살펴보면, 만1세 ($M=2.12$, $SD=.80$), 만 2세($M=1.98$, $SD=.6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영아 연령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영아의 연령에 따른 내면적 문제행동 전체 차이는 만 1세($M=2.13$, $SD=.763$), 만 2세($M=2.01$, $SD=.61$)로

나타났으며 영아 연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내면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분리불안은 만 1세($M=10.38$, $SD=4.43$), 만 2세($M=9.40$, $SD=3.75$)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06$, $p<.05$).

〈표 8〉 영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

(N=300)

하위영역	만1세	만2세	t
	(n=143)	(n=152)	
	M(SD)	M(SD)	
내면적 문제행동 전체	2.13(.76)	2.01(.61)	1.51
우울·위축	12.76(4.20)	12.24(3.39)	1.18
일반적 불안	10.43(5.45)	10.14(4.32)	.50
분리불안	10.38(4.43)	9.40(3.75)	2.06*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6.89(2.68)	6.49(2.79)	1.24
외현적 문제행동 전체	2.10(1.02)	1.94(.92)	1.46
활동·충동성	10.60(5.37)	10.23(4.92)	.61
공격·반항성	26.86(13.62)	24.21(12.91)	1.73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전체	2.12(.80)	1.98(.64)	1.69

* $p<.05$

즉, 만 1세 영아가 만 2세 영아보다 분리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위축은 만 1세($M=12.76$, $SD=4.20$), 만 2세($M=12.24$, $SD=3.3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 불안 차이는 만 1세($M=10.43$, $SD=5.45$), 만 2세($M=10.14$, $SD=4.3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는 만 1세($M=6.89$, $SD=2.68$), 만 2세

($M=6.49$, $SD=2.79$)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영아의 연령에 따른 외현적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만1세($M=10.60$, $SD=5.37$), 만2세($M=10.23$, $SD=4.9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외현적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충동성은 만1세($M=10.60$, $SD=5.37$), 만2세($M=10.23$, $SD=4.9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공격·반항성은 만1세($M=26.86$, $SD=13.62$), 만2세($M=24.21$, $SD=12.9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3.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차이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의 차이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차이를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남아($M=14.53$, $SD=4.24$), 여아($M=14.70$, $SD=3.9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활동성 기질은 남아($M=24.67$, $SD=5.54$), 여아($M=24.56$, $SD=4.9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사회성 기질은 남아($M=14.06$, $SD=3.23$), 여아($M=14.03$, $SD=2.5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표 9〉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의 차이 (N=300)

하위영역	남아 (n=163)	여아 (n=137)	t
	M(SD)	M(SD)	
정서성	14.53(4.24)	14.70(3.96)	-.35
활동성	24.67(5.54)	24.56(4.90)	.17
사회성	14.06(3.23)	14.03(2.51)	.09

2)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 차이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 전체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 하위영역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수면종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차이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 전체의 차이는 남아($M=2.74$, $SD=.49$), 여아($M=2.85$, $SD=.4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1.99$, $p<.01$). 즉, 여아가 남아보다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양상이 대체적으로 안정되고 규칙적인 것을 의미한다.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낮잠시작은 남아($M=2.89$, $SD=1.04$), 여아($M=2.92$, $SD=1.0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수면시작은 남아($M=2.89$, $SD=1.04$), 여아($M=2.92$, $SD=1.1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수면유지는 남아($M=1.88$, $SD=.82$), 여아($M=1.79$, $SD=.7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수면 중 각성은 남아($M=2.94$, $SD=.95$), 여아($M=3.11$,

$SD=.8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수면 종료는 남아($M=2.83, SD=.58$), 여아($M=3.01, SD=.5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t=-2.76, p<.01$). 즉, 여아가 남아보다 낮잠이 끝나고 수면이 종료된 것을 잘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낮잠이 끝나고 수면이 종료된 것을 잘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 차이 (N=300)

하위영역	남아	여아	t
	(n=163)	(n=137)	
	$M(SD)$	$M(SD)$	
낮잠시작	3.16(1.18)	3.41(.98)	-1.96
수면시작	2.89(1.04)	2.92(1.01)	-2.53
수면유지	1.88(.82)	1.79(.74)	.91
수면 중 각성	2.94(.95)	3.11(.82)	-1.66
수면종료	2.83(.58)	3.01(.56)	-2.76**
어린이집 낮잠양상 전체	2.74(.49)	2.85(.46)	-1.99*

* $p<.05$, ** $p<.01$

3) 영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차이

영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하위영역 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외현적 문제행동 전체, 활동·충동성, 공격·반항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차이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영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차이 (N=300)

하위영역	남아	여아	t
	(n=163) M(SD)	(n=137) M(SD)	
내면적 문제행동 전체	2.08(.75)	2.06(.61)	.14
우울·위축	12.60(4.02)	12.38(3.56)	.49
일반적인 불안	10.48(5.23)	10.14(4.49)	.77
분리불안	10.38(4.26)	9.40(3.94)	.76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6.37(2.63)	7.06(2.83)	-2.15*
외현적 문제행동 전체	2.21(1.04)	1.79(.84)	3.77**
활동·충동성	11.43(5.43)	9.20(4.50)	3.87**
공격·반항성	27.93(14.33)	22.65(11.38)	3.55**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전체	2.14(.79)	1.94(.62)	1.69**

* $p < .05$, ** $p < .01$

영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M=2.14$, $SD=.79$), 여아($M=1.94$, $SD=.6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06$, $p < .01$). 즉, 남아가 여아보다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의 성별에 따른 내면적 문제행동 차이를 살펴보면, 우울·위축은 남아($M=12.60$, $SD=4.02$), 여아($M=12.38$, $SD=3.5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인 불안은 남아($M=10.48$, $SD=5.23$), 여아($M=10.14$, $SD=4.4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분리불안은 남아($M=10.38$, $SD=4.26$), 여아($M=9.40$, $SD=3.9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는 남아($M=6.37$, $SD=2.63$), 여아($M=7.06$, $SD=2.8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2.15$, $p < .05$). 즉, 여아가 남아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것

을 의미한다.

영아의 성별에 따른 외현적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M=2.21$, $SD=1.04$), 여아($M=1.79$, $SD=.8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77$, $p<.01$). 영아의 성별에 따른 외현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충동성은 남아($M=11.43$, $SD=5.43$), 여아($M=9.20$, $SD=4.5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87$, $p<.01$). 즉,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충동적인 외현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반항은 남아($M=27.93$, $SD=14.33$), 여아($M=22.65$, $SD=11.3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55$, $p<.01$). 즉,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반항적인 외현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4.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간의 관계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간의 관계 (N=300)

	어린이집 낮잠양상 전체	낮잠시작	수면시작	수면유지	수면 중 각성	수면종료
정서성	-.28**	-.26**	-.04	-.21**	-.39**	-.15**
사회성	.13*	.11*	.04	.14*	.16**	.12*
활동성	-.09	-.13*	-.14*	-.16**	-.10	-.07

* $p < .05$, ** $p < .01$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정서성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전체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 = -.28, p < .01$), 사회성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전체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3, p < .05$). 또한 활동성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전체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즉,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에서의 낮잠 양상이 불안정 하거나 규칙적이지 못한 반면, 영아의 사회성 기질이 높을수록 낮잠양상이 안정되고 규칙적임을 의미한다.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하위영역별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성 기질과 낮잠시작 ($r = -.26, p < .01$), 수면유지 ($r = -.21, p < .01$), 수면 중 각성 ($r = -.39, p < .01$), 수면종료 ($r = -.15, p < .01$)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성 기질과 낮잠시작 ($r = -.13, p < .05$), 수면시작 ($r = -.14, p < .05$), 수면유지 ($r = -.16, p < .01$)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낮잠시간 동안 낮잠시작, 수면유지, 수면 중 각성, 수면종료 과정의 낮잠양상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규칙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낮잠시간 동안 낮잠시작, 수면시작, 수면유지 과정의 낮잠양상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규칙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성 기질과 낮잠시작 ($r = .11, p < .05$), 수면유지 ($r = .14, p < .05$), 수면

중 각성($r=.16, p<.01$), 수면종료($r=.12, p<.05$)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사회성 기질이 높을수록 낮잠시간 동안의 낮잠시작, 수면 유지, 수면 중 각성, 수면종료 과정의 낮잠양상이 안정되고 규칙적임을 의미한다.

2)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3와 같다.

〈표 13〉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 (N=300)

	사회 정서적 문제 행동 전체	내면적 문제 행동 전체	우울 위축	일반 적인 불안	분리 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외현적 문제 행동 전체	활동 충동성	공격 반항성
정 서 성	.41**	.44**	.30**	.26**	.49**	.44**	.29**	.13**	.32**
사 회 성	-.13*	-.27**	-.23**	-.15**	-.22*	-.33**	.01	.11*	-.01
활 동 성	.17**	-.05	-.05	-.05	.06	-.17**	.32**	.46**	.24**

* $p<.05$, ** $p<.01$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정서성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전체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1, p<.01$). 사회성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전체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r = -.13, p < .05$), 활동성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전체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17, p < .01$). 즉,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성 기질이 높을수록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의 기질과 내면적 문제행동 하위영역별로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성 기질과 내면적 문제행동 전체 ($r = .44, p < .01$), 우울·위축($r = .30, p < .01$), 일반적 불안($r = .26, p < .01$), 분리불안($r = .49, p < .01$),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r = .44, p < .01$)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내면적 문제행동을 나타내며, 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성 기질과 내면적 문제행동($r = -.27, p < .01$), 우울·위축($r = -.23, p < .01$), 일반적인 불안($r = -.15, p < .01$), 분리불안($r = -.22, p < .01$),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r = -.33, p < .01$)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성 기질이 높을수록 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내면적 문제행동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성 기질과 내면적 문제행동 전체, 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아의 기질과 외현적 문제행동 하위영역별로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성 기질과 외현적 문제행동 전체 ($r = .29, p < .01$), 활동·충동성($r = .13, p < .01$), 공격·반항성($r = .32, p < .01$)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내면적 문제행동을 나타내며, 활동·충동성 행동과 공격·반항성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성 기질과 외현적 문제행동 전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활동·충동성($r = .13, p < .01$)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성 기질이 높을수록 활동·충동성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성 기질과 외현적 문제행동 전체

($r=.32, p<.01$), 활동·충동성($r=.46, p<.01$), 공격·반항성($r=.24, p<.01$)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외현적 문제행동을 나타내며, 활동·충동성 행동과 공격·반항성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3) 어린이집 낮잠양상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

어린이집 낮잠 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어린이집 낮잠 양상 전체와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전체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1, p<.01$). 즉, 영아의 어린이집 낮잠시간동안의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낮잠 양상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어린이집 낮잠양상 하위영역과 내면적 문제행동 하위영역별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전체와 내면적 문제행동 전체($r=-.51, p<.01$), 우울·위축($r=.39, p<.01$), 일반적인 불안($r=-.44, p<.01$), 분리불안($r=-.52, p<.01$),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r=-.20, p<.01$)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어린이집 낮잠시간 동안의 낮잠양상이 안정적이고 규칙적일수록 영아의 내면적 문제행동, 우울·위축, 일반적 불안,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행동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 낮잠시작과 내면적 문제행동 전체 ($r=-.53, p<.01$), 우울·위축($r=-.48, p<.01$), 일반적인 불안($r=-.56, p<.01$), 분리불안($r=-.56, p<.01$),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r=-.16, p<.01$)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낮잠을 준비하는 과정이 편안하고 안정적일수록 영아의 내면적 문제행동, 우울·위축, 일반적

〈표 14〉 어린이집 낮잠 양상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 (N=300)

	사회 정서적 문제 행동 전체	내면적 문제 행동 전체	우울 위축	일반 적인 불안	분리 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외현적 문제 행동 전체	활동 충동성	공격 반항성
낮잠 양상 전체	-.61**	-.51**	-.39**	-.44**	-.52**	-.20**	-.56**	-.53*	-.53**
낮잠 시작	-.71**	-.59**	-.48**	-.56**	-.56**	-.16**	-.65**	-.57**	-.62**
수면 시작	-.32**	-.19**	-.13*	-.18**	-.22**	-.03	-.36**	-.36**	-.32**
수면 유지	-.56**	-.53**	-.45**	-.51**	-.46**	.08	-.37**	-.49**	-.41**
수면 중 각성	-.72**	-.66**	-.48**	-.54**	-.67**	-.35**	-.61**	-.55**	-.59**
수면 종료	-.25**	-.22**	-.21**	-.22**	-.16**	-.06	-.18**	-.21**	-.22**

* $p < .05$, ** $p < .01$

인 불안,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행동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면시작과 내면적 문제행동 전체($r = -.36$, $p < .01$), 우울·위축($r = -.19$, $p < .01$), 일반적인 불안($r = -.32$, $p < .05$), 분리불안($r = -.36$, $p < .05$)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가 수면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편안하고 쉽게 잠들수록 영아의 내면적 문제행동, 우울·위축, 일반적 불안, 분리불안 행동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유지와 내면적 문제행동 전체($r = -.53$, $p < .01$), 우울·위축($r = -.45$, $p < .01$), 일반적 불안($r = -.51$, $p < .01$), 분리불안($r = -.46$, $p < .01$)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낮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내면적 문제행동, 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 분리불안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 중 각성과 내면적 문제행동 전체

($r = -.66, p < .01$), 우울·위축($r = -.48, p < .01$), 일반적인 불안($r = -.54, p < .01$), 분리불안($r = -.67, p < .05$),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r = -.35, p < .01$)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영아가 낮잠시간 동안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드는 과정이 편안하고 안정적일수록 내면적 문제행동, 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행동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종료와 내면적 문제행동 전체($r = -.22, p < .01$), 우울·위축($r = -.21, p < .01$), 일반적인 불안($r = -.22, p < .01$), 분리불안($r = -.16, p < .01$)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낮잠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일수록 내면적 문제행동, 우울·위축, 일반적 불안, 분리불안 행동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집 낮잠양상 하위영역과 외현적 문제행동 하위영역별로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낮잠양상 전체와 외현적 문제행동 전체 ($r = -.56, p < .01$), 활동·충동($r = -.53, p < .05$), 공격·반항($r = -.53, p < .01$)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어린이집 낮잠시간동안의 낮잠양상이 안정적이고 규칙적일수록 외현적 문제행동, 활동·충동, 공격·반항 행동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낮잠시작과 외현적 문제행동 전체($r = -.65, p < .01$), 활동·충동($r = -.57, p < .01$), 공격·반항($r = -.62, p < .01$)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낮잠을 준비하는 과정이 편안하고 안정적일수록 외현적 문제행동, 활동·충동, 공격·반항 행동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시작과 외현적 문제행동 전체($r = -.22, p < .01$), 활동·충동($r = -.18, p < .01$), 공격·반항($r = -.13, p < .05$)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영아가 수면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편안하고 쉽게 잠들수록 외현적 문제행동, 활동·충동, 공격·반항 행동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유지와 외현적 문제행동 전체($r = -.37, p < .01$), 활동·충동($r = -.49, p < .01$), 공격·반항($r = -.41, p < .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낮잠이 안

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외현적 문제행동, 활동·충동성, 공격·반항성 행동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 중 각성과 외현적 문제행동 ($r=-.61, p<.01$), 활동·충동($r=-.55, p<.01$), 공격·반항($r=-.59, p<.01$)에서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영아가 낮잠시간 동안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드는 과정이 편안하고 안정적일수록 외현적 문제행동, 활동·충동, 공격·반항 행동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종료와 외현적 문제행동($r=-.18, p<.01$), 활동·충동($r=-.21, p<.01$), 공격·반항($r=-.22, p<.01$)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낮잠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일수록 외현적 문제행동, 활동·충동, 공격·반항 행동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4.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아의 기질은 정서적 기질, 사회성 기질, 활동성 기질과 어린이집의 낮잠양상은 낮잠시작, 수면시작, 수면유지, 수면 중 각성, 수면종료가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내면적 문제행동인 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외현적 문제행동인 활동·충동, 공격·반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확인 결과는 공차한계 .455-.917로 1.0 이하였으며, 모든 변인들의 상승값(VIF)의 다중공선성의 결과는 분산팽창계수(VIF) 범위 1.042-2.198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Durbin-Watson계수 1.478-1.793로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만족하였다.

1)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내면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내면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첫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영아의 내면적 문제행동 5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수면 중 각성이 43%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서 정서성 기질을 첨가됨으로써 7%가 증가하여 50%의 설명력을 가지며, 낮잠시작이 4% 증가하여 54%의 설명력을 가지며, 사회성 기질이 3% 증가하여 57% 설명력을 가지며, 활동성 기질이 1%를 증가하여 전체 58%의 설명력을 가진다. 영아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내면적 문제행동에 설명하지 않는 변수들은 제거되었고 F 값 59.44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 모형식 적합하다고 보여준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의하면 수면 중 각성($\beta = -.45$, $P < 0.01$)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서성 기질($\beta = .30$, $P < 0.01$), 낮잠시작($\beta = -.28$, $P < 0.01$), 사회성 기질($\beta = -.11$, $P < 0.01$), 활동성 기질($\beta = -.08$, $P < 0.5$) 순으로 내면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둘째, 영아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하위영역과 내면적 문제행동 하위영역 우울·위축은 3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낮잠시작이 23%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서 수면 중 각성이 첨가됨으로써 8%가 증가하여 설명력을 가지며, 사회성 기질이 4%를 증가하여 35%의 설명력을 가지며, 활동성 기질이 3%를 증가하여 전체 38%의 설명력을 가진다. 영아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내면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우울·위축을 설명하지 않는 변수들은 제거되었고 F 값 30.96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표 15〉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내면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N=300)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β	t	R^2	R^2 변화량	F
내면적 문제 행동 전체	(상수)	2.99		10.50**			
	정서성	.20	.30	6.19**		.07	
	사회성	-.01	-.11	-2.75**		.01	
	활동성	-.02	-.08	-2.23*	.58	.03	59.44**
	낮잠시작	-.17	-.28	2.58**		.04	
우울 위축	수면 중 각성	-.28	-.45	-7.15**		.43	
	(상수)	17.90		11.49**			
	사회성	-.08	-.11	-2.49*		.04	
	활동성	-.15	-.11	-2.47*		.02	
	낮잠시작	-1.13	-.32	-4.65**	.38	.23	30.96**
일반 적인 불안	수면 중 각성	-.92	-.27	-4.25**		.05	
	(상수)	15.29		8.83**			
	활동성	-.20	-.12	-2.74**		.02	
	낮잠시작	-1.58	-.35	-4.89**	.46	.31	50.28**
	수면 중 각성	-1.33	-.30	-4.49**		.06	
분리 불안	(상수)	13.10		13.47**			
	정서성	.23	.23	5.29**		.05	
	낮잠시작	-.81	-.21	-3.41**	.54	.04	89.56**
	수면 중 각성	-1.94	-.52	-8.01**		.45	
	(상수)	9.39		7.44**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정서성	.19	.28	5.22**		.20	
	사회성	-.09	-.18	-3.60**	.31	.04	26.98**
	활동성	-.13	-.14	-2.59**		.01	
	수면 중 각성	-.94	-.28	-4.87**		.06	

* $p < .05$, ** $p < .01$

회귀 모형식 적합하다고 보여준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의하면 낮잠시작($\beta = -.32, P < 0.01$) 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 중 각성($\beta = -.27, P < 0.01$), 사회성 기질($\beta = -.11, P < 0.5$), 활동성 설명력을 가지며, 사회성 기질이 4%를 증가하여 35%의 설명력을 가지며, 활동성 기질이 3%를 증가하여 전체 38%의 설명력을 가진다. 영아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내면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우울·위축을 설명하지 않는 변수들은 제거되었고 F 값 30.96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 모형식 적합하다고 보여준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의하면 낮잠시작($\beta = -.32, P < 0.01$) 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 중 각성($\beta = -.27, P < 0.01$), 사회성 기질($\beta = -.11, P < 0.5$), 활동성 기질($\beta = -.11, P < 0.5$) 순으로 내면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우울·위축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셋째, 영아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하위영역과 내면적 문제행동 하위영역 일반적인 불안은 4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낮잠시작이 32%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서 수면 중 각성이 첨가됨으로써 9%를 증가하여 41%의 설명력을 가지며, 활동성 기질이 5%를 증가하여 전체 49%의 설명력을 가진다. 영아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내면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일반적인 불안을 설명하지 않는 변수들은 제거되었고 F 값 50.28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 모형식 적합하다고 보여준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의하면 낮잠시작($\beta = -.35, P < 0.01$) 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 중 각성($\beta = -.30, P < 0.01$), 활동성 기질($\beta = -.12, P < 0.01$) 순으로 내면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일반적인 불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넷째, 영아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하위영역과 내면적 문제행동 하위영역 분리 불안은 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수면 중 각성이 45%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서 정서성 기질이 첨가됨으로써 5%를 증가하여 50%의 설명력을 가지며, 낮잠시작이 4%를 증가하여 전체의 54% 설명력을 가진다. 영아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내면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분리불안을 설명하지 않는 변수들은 제거되었고 F 값 89.56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 모형식 적합하다고 보여준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의하면 수면 중 각성($\beta=-.52, P<0.01$) 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성 기질($\beta=.23, P<0.01$), 낮잠시작($\beta=-.21, P<0.01$) 순으로 내면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일반적인 불안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다섯째, 영아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하위영역과 내면적 문제행동 하위영역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를 3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정서성 기질이 20%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서 수면 중 각성이 첨가됨으로써 6%를 증가하여 26%의 설명력을 가지며, 사회성 기질이 4%를 증가하여 30%의 설명력을 가지며, 활동성 기질이 1%를 증가하여 전체 31%의 설명력을 가진다. 영아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내면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를 설명하지 않는 변수들은 제거되었고 F 값 26.98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 모형식 적합하다고 보여준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의하면 정서성 기질($\beta=.28, P<0.01$) 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 중 각성($\beta=-.28, P<0.01$), 사회성 기질($\beta=-.18, P<0.01$), 활동성 기질($\beta=-.14, P<0.01$)순으로 내면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6 같다.

〈표 16〉 영아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미치는 영향 (N=300)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β	t	R ²	R ² 변화량	F
외현적 문제 행동 전체	(상수)	1.08		2.62**			
	정서성	.02	.11	2.56*	.56	.02	53.90**
	활동성	.07	.21	5.38**		.06	
	낮잠시작	-.34	-.39	-5.95**		.43	
수면 중 각성	-.19	-.21	-3.34**	.05			
활동 충동성	(상수)	5.47		3.16**			
	사회성	.12	.12	3.10**	.53	.01	68.69*
	활동성	.61	.35	8.47**		.33	
	낮잠시작	-1.28	-.27	-4.28**		.11	
수면 중 각성	-1.23	-.26	-4.22**	.08			
공격 반항성	(상수)	14.26		2.39*			
	정서성	.48	.15	3.16**	.50	.05	43.14**
	활동성	.68	.15	3.47**		.05	
	낮잠시작	-4.63	-.38	-5.49**		.39	
수면 중 각성	-2.35	-.14	-2.84**	.01			

*p<.05 **p<.01

첫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영아의 외현적 문제행동 5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낮잠시작이 43%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활동성 기질이 6% 추가하여 49% 설명력을 가지며 수면 중 각성이 5%로 추가하여 54%의 설명력을 가지며 정서성 기질이 2%를 추가하여 전체 56%의 설명

력을 가진다. 영아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외현적 문제행동 설명하지 않는 변수들은 제거되었고 또한, F 값 53.90,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회귀 모형식 적합하다고 보여준다. 독립변수의 기여도 표준화계수 의하면 낮잠시작($\beta=-.39$, $P<0.01$)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성 기질($\beta=.21$, $P<0.01$), 수면 중 각성($\beta=-.21$, $P<0.01$), 정서성 기질($\beta=.10$, $P<0.5$)순으로 외현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과 영아의 외현적 문제행동 하위영역 활동·충동은 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활동성 기질이 33%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낮잠시작이 11% 추가하여 44% 설명력을 가지며 수면 중 각성이 8%로 추가하여 52%의 설명력을 가지며 사회성 기질이 1%를 추가하여 전체 53%의 설명력을 가진다. 영아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외현적 문제행동 하위영역 활동·충동을 설명하지 않는 변수들은 제거되었고 또한, F 값 68.69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 모형식 적합하다고 보여준다. 독립변수의 기여도 표준화계수 의하면 활동성 기질($\beta=.35$, $P<0.01$)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낮잠시작($\beta=-.27$, $P<0.01$), 수면 중 각성($\beta=-.26$, $P<0.01$) 사회성 기질($\beta=.12$, $P<0.01$) 순으로 외현적 문제행동에 하위영역 활동·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과 영아의 외현적 문제행동 하위영역 공격·반항성은 5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낮잠시작이 39%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이 각각 5%로 증가하여 49%의 설명력을 가지며, 수면 중 각성이 1%를 증가하여 전체 50%의 설명력을 가진다. 영아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외현적 문제행동 하위영역 공격·반항성을 설명하지 않는 변수들은 제거되었고 또한, F 값 43.14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 모형식 적합하다고 보여준다. 독립변수의 기여도 표준화계수 의하면 낮잠시작($\beta=-.38$, $P<0.01$)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성 기질($\beta=.15, P<0.01$), 정서성 기질($\beta=.15, P<0.01$), 수면 중 각성($\beta=-.14, P<0.01$) 순으로 외현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공격·반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미치는 영향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영아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대한 미치는 영향 (N=300)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β	t	R ²	R ² 변화량	F
	(상수)	2.12		8.89**			
사회 정서적 문제 행동	정서성	.02	.14	3.77**	.67	.04	100.01**
	활동성	.02	.09	2.75**			
	낮잠시작	-.24	-.36	6.52**			
	수면 중 각성	-.25	-.39	6.87**			

* $p<.05$, ** $p<.01$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6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수면 중 각성이 52%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에 낮잠시작이 첨가됨으로써 8%가 증가하여 60%의 설명력을 가지며, 정서성 기질은 4% 증가하여 64%의 설명력을 가지며, 활동성 기질이 3%로 증가하여 67% 전체 설명력을 가진다. 영아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설명하지 않는 변수들은 제거되었고, F 값 100.01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 모형식 적합하다고 보여준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의하면 수면 중

각성($\beta = -.39$, $P < 0.01$) 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낮잠시작($\beta = -.36$, $P < 0.01$) 그 다음으로 정서성 기질($\beta = .14$, $P < 0.01$), 활동성 기질($\beta = .09$, $P < 0.5$) 순으로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영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 및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논의

1)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일반적인 경향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기질 대한 경향을 살펴본 결과, 영아의 기질은 5점 척도 평균 기준에서 정서성 3.36점, 사회성 3.04점, 활동성 3.32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 기질을 대상으로 한 엄세진(2014), 서소정(2009)의 연구에서 영아의 기질 특성이 영역별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영아의 기질특성이 영역별로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결과는 영아의 발달적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 1세 영아는 자신을 타인과 혹은 사물과 구별하기 시작하지만, 타인이 자신과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상대방 감정표현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다(곽금주 외, 2005; 조미숙, 2018). 또한 만 2세가 되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여, 성인의 지시에 ‘안 해’ 또는 ‘내가’의

표현이 많아지며, 성인의 도움 없이 무엇이든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시도하게 된다 (류경희, 2016). 영아는 조절과 분노를 강력하게 나타내며 부정적 정서적 기질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호기심과 주변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활동성이 강하게 나타난다(Buss, Plomin, 1984). 본 연구에서 영아의 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이 사회성 기질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영아기 발달특성이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어린이집 낮잠양상 경향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낮잠 양상은 6점 척도이며 5점 만점 기준에서 평균점수가 2.83점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낮잠 양상 평균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난 임민영(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낮잠양상이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것은 본 연구 영아들의 낮잠양상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규칙적이라는 것을 예측 해 볼 수 있다. 하위영역별 낮잠양상을 살펴보면, 수면유지가 1.84점으로 6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낮잠시간 동안 영아들의 수면이 깊게 유지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아들의 수면주기 특성이 NREM수면에서 REM수면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며, 깊은 잠을 자는 NREM수면단계에서 선잠을 자는 REM수면으로 반복적으로 수면주기를 이룬다 (강영희, 2000). 결과적으로 영아들이 NREM수면에서 REM수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영아들이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가장 어렵하다는 점에서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시간이 보다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경향을 살펴보면, 5점 척도 평균기준에서 2.05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내면적 문제행동은 새로운 것 대한 거부, 불리 불안, 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 순으로, 외현적 문제행동은 활동·충동, 공격·반항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경향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윤세영(2017)과 노혜환(2017)의 연구에서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 경향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보육교사 인식을 분석한 연구(홍성호, 강혜원, 강기섭, 2016)에서 만 5세 유아의 문제행동을 만 2세 영아의 문제행동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영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교사가 평정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영아반 교사들은 영아들의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보기 보다는 발달적 특징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육교사들이 만 1세-만 2세 영아들이 보이는 울기,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등의 행동을 발달상의 반응적 행동이나 구어 의사소통이 발달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권정운, 윤주희, 김소희, 2012)과도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다.

2)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른 영아의 기질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성 기질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만 1세 영아들이 만 2세 영아보다 부정적 정서성 기질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성 기질특성은 만 2세 영아들이 만 1세 영아에 비해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uss와 Plomin(1984)의 연구결과에서 만 1세반 영아가 만 2세반 영아보다 기질이 까다롭고, 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응성이 낮으며, 반응표현이 격렬하고, 부정적인 기분이 많이 나타나며, 만 1세에서 만 2세까지 영아들의 사회성 기질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별로 수면 중 각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만 2세 영아가 만 1세 영아보다 어린이집 낮잠 시간 동안 잠에서 깨었다가도 다시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진욱(2015)의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는 생활의 리듬을 어린이집에 맞춰 가는데 있어서 연령이 높을수록 수면양상이 안정감을 찾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린이집 낮잠을 어려워하며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세심한 관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연령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전체적으로 만 1세와 만 2세는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영역의 내면적 문제행동인 분리불안에서 만 1세가 만 2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면적 문제행동에서 우울·위축, 일반적 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외현적 문제행동에서 활동·충동성, 공격·반항성의 하위영역 모두 만 1세와 만 2세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면적 문제행동에서 분리불안만 유의미한 차이의 결과가 나타났다. 조복희(2014)연구에 따르면, 만 1세 영아의 발달특성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과정에서 애착과 분리불안이 많이 보이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한 애착을 형성할 시기에 부모와 떨어져 어린이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만 1세는 만 2세보다 분리불안을 더 느끼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성 기질, 활동성 기질, 사회성 기질은 남아와 여아의 성별에 따른 결과와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의 기질에 있어 뚜렷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나영균, 2006; 고은주, 1993; 원영미, 1990)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남아와 여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유주연(201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성의 기질 특성을 더 많이 지닌다는 (김난영, 신유림, 2001; 천희영, 1993)연구들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영아의 기질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별로 수면종료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별로 수면종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어린이집 낮잠시간이 끝나고 수면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경숙, 박미현, 박지현(2003)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다양한 수면행동과 수면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의 성별에 따른 낮잠 양상을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 분석해봄으로써 낮잠에서 나타나는 성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낮잠지도방안 모색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영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내면적 문제행동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게 나타났다. 외현적 문제행동에서는 활동.충동성과 공격.반항성이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윤현수, 강현숙, 오경자(2011)의 연구와 권수진, 오새니, 이상희(2016)의 연구에서 남아들이 외현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연구들에서 우울과 위축성향이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는 우울과 위축 하위영역은 남아와 여아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 기질이 영아의 수면에 영향 요인이 된다고 보고한 이나경(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본 연구에서 정서성 기질, 활동성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전체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불안하고 불규칙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양상이 불안하고 불규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성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전체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성 기질 높을수록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안정적이며 규칙적이며, 사회성 기질 특성을 보이는 영아들이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을 비교적 잘 잘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전체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전체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낮은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 기분 상태가 부적응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박은영(2000)과 서수경(1993)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나영균, 이영환, 한지현(2006)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며, 사회성 기질이 높을수록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이찬숙, 현은자(200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내면적 문제행동의 영역별 관계를 살펴보면, 내면적 문제행동은 부정적 정서성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사회성 기질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찬숙, 현은자(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부정적 정서성이 우울·위축, 일반적 불안, 분리불안,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행동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며, 반대로 사회성 기질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줄여줄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어린이집 낮잠양상과 사회 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 살펴보면, 어린이집 낮잠 양상 전체와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전체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는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안정적이고 규칙적일수록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 수면이 질이 낮을수록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이 높아지는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배정인(2015)의 연구와 일치하며, 영아의 수면 문제가 내면적, 외현적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황성연, 오재연, 김경란, 남민우, 201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불안하고 불규칙할수록 영아의 수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영아가 낮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어린이집 낮잠양상 하위영역과 내면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별 관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낮잠양상 하위영역별로 낮잠시작, 수면 중 각성과 내면적 문제행동 하위영역인 우울·위축, 일반적 불안,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잠시작이 준비되지 않

있을 때 영아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소등 시, 우울·위축된 행동을 하며, 특히 어린이집 낮잠시간이 빠르게 진행될 때 영유아의 정서적 불안 행동이 높아지는 김윤희(2018)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위축 행동을 보이며 내면적 문제행동이 높아진다는 조희숙(2008)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결국 영아들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낮잠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낮잠과 관련된 사전 활동을 계획하여 영아들이 낮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실 소등을 천천히 하여 불안감이 증폭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어린이집 낮잠양상과 외현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별 관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낮잠양상 전체와 외현적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활동·충동성, 공격·반항성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수면이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게 경험하는 유아들은 외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고 친사회적 행동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신나나, 박보경, 김민주, 윤기봉, 윤선영, (2017)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수면의 질은 영아의 문제행동의 영향을 미친다는 한진규(2006)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즉,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불안하고 불규칙 할 수록 수면 중 일찍 일어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며 다른 친구들의 낮잠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계속 안아달라고 요구하거나 활동적인 행동을 하며 다시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낮잠의 종료에도 더 자려고 개인이불에 누워 있거나 버티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교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여 오후활동을 전개 해 나가지는 상황등을 예측할 수 있다.

어린이집 낮잠양상 하위영역과 외현적 문제행동 하위영역별로 관계를 살펴보면, 낮잠시작과 수면 중 각성, 활동·충동성, 공격·반항성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잠에서 빨리 잠든 유아는 공격·반항, 충동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김윤희(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또한 유아가 깊게 자고 자주 깨지 않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진다고 보고

한 유수옥(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면 중에 다시 깨어나 다시 잠들기 어려울수록 잠을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거나 소리를 지르며 교사에게 매달리고 떼를 쓰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가 낮잠시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수면습관을 빠르게 파악하며 깊은 수면에서 다시 깨어나는 과정 중에서도 영아가 편안하고 긍정적인 낮잠이 이루어지도록 교사와 주변 환경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영향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영아의 내면적 문제행동에서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수면 중 각성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서성 기질, 낮잠시작, 사회성 기질 순으로 내면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어린이집 낮잠 수면에서 빠르게 깨어날수록 위축 행동이 나타난다는 김윤희(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영아의 내면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낮잠양상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아들이 수면 중에 다시 깨어나게 되는 과정 중에 교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거나 안정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낮잠의 질이 보장되지 못할 때에는 우울하거나 짜증을 내는 등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아들의 낮잠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아가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낮잠을 두려워하거나 낮잠을 미루는 행동을 하며 수면 중에 자주 깨거나 뒤척이며 낮잠을 깊게 잠들지 못하여 기운 없고 우울하고 위축 행동 등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기질에 따라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질과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기질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을 관찰하고 알맞은 수면습관과 수면환경을 고려하여 영아가 문제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외현적 문제행동에서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낮잠시작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활동성 기질, 수면 중 각성, 정서성 기질 순으로 외현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결과는 수면의 질과 수면습관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현주, 2009; 유수옥, 2012; 황혜정, 2012; 조희숙, 2008)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낮잠시작을 미루거나 힘들어하며 수면 중 각성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깊게 수면을 들지 못하고 낮잠을 충분하게 취하지 못한 영아는 분노를 표출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수면 중 각성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낮잠시작, 정서성 기질, 활동성 기질 순으로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영아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은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영역 중에서 수면 중 각성이며 낮잠의 시작에서 수면 중 각성으로 잘 이어지지 않으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이 낮잠양상의 불안을 높이게 되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발생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영아의 기질의 5점 척도 기준으로 볼 때 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성 기질은 평균 정도 나타났다.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6점 척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낮잠시작, 수면시작, 수면 중 각성, 수면종료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수면유지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5점 척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내면적 문제행동에서의 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외현적 문제행동에서의 활동·충동성, 공격·반항성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 어린이집 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 영아의 연령에 따른 기질의 차이는 정서성 기질은 만 1세가 만 2세보다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많이 나타났으며, 활동성 기질은 만 2세가 만 1세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사회성 기질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요인별 수면유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만 2세가 만 1세보다 낮잠의 시작에 수면으로 이어지기까지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차이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내면적 문제행동에서 만 1세가 만 2세보다 분리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고, 외현적 문제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성 기질, 활동성 기질, 사회성 기질,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요인별로 수면종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어린이집 낮잠시간이 끝나고 수면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내면적 문제행동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외현적 문제행동에서는 활동·충동성과 공격·반항성이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활동성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 기질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낮잠양상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낮잠양상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의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내면적 문제행동에 대해서 수면 중 각성, 정서성 기질, 낮잠시작, 사회성 기질 순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낮잠시작, 활동성 기질, 수면 중 각성, 정서성 기질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의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에 대해서 수면 중 각성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잠시작, 정서성 기질, 활동성 기질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 영아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문제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발전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아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에 시사점이 크다. 영아의 기질에 따라 낮잠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며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잠은 어린이집에서 하루일과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능 뿐 만 아니라, 다음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을 보충하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잠시간은 영아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건강영역 중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학급 구성원인 영아 그리고 교사와 함께 적어도 1년 동안 학급을 유지하며 함께 지내는 낮잠시간이다. 낮잠시간에 낮잠양상이 불안전하고 불규칙한 영아가 있다면 학급의 낮잠시간은 개별적인 영아 뿐 만 아니라 함께 낮잠을 자는 또래 친구들과 교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개별적 행동과 집합적인 행동 간의 상호관련성이 있고 개별적인 행동이 집단적인 행동에 영향을 준다 (KarenGlsnz, BarbaraK.Rimer, FranceMarcusLewis, 2009). 영아의 개별적인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을 파악하여 낮잠시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첫째, 영아의 기질과 영아의 낮잠양상을 파악하고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순자(2013)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휴식과 낮잠은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교사를 찾으며 도움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낮잠시간에 교사는 영아의 개별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영아와의 애착과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는 끊임없는

관심으로 영아를 계속 관찰하면서 살펴보아야한다(권혜진, 2014). 영유아의 안전하고 평온한 낮잠시간이 되도록 어린이집의 일과에 따라 급하게 낮잠을 재우기보다는 영아가 낮잠을 잘 수 있도록 교사의 긍정적인 노력이 요구된다(임민영, 2016).

둘째, 영아의 개인적인 기질에 알맞은 낮잠시간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이외의 보조 인력이 필요하며 영아를 위한 개별화된 낮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류희경(2012)은 낮잠시간의 경우 영아교사는 혼자서 영아의 개별 낮잠 방식에 따라 낮잠을 재우면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각각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낮잠을 자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는 것에 대해 불편함 혹은 불안감을 느껴 낮잠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며 울음으로 표현을 한다. 이로 인해 영아교사는 한 교실에서 잠이 든 다른 영아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우는 영아를 달래야 하며 보살펴주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소진은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박남희, 이대균, 2014). 영아의 낮잠시간은 개별적 낮잠 욕구를 일일이 수용하는 역할수행으로 교사 대 영아비율이 높아서 교사 혼자서 낮잠을 동시에 돌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조미숙, 2015). 따라서 다양한 차원에서의 교사 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낮잠실 등의 별도의 공간 확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낮잠의 환경은 대부분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낮잠실 등 별도의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낮다. 영아들에게 수면시간이 갖는 비중은 매우 크며, 자유놀이 또는 점심을 먹다가도 갑자기 수면을 취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수시로 교실에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낮잠시간에 잠을 자려는 아동과 잠을 자지 않으려하는 아동이 섞여 있게 되므로 낮잠 공간과 보육 활동 공간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최경애, 2002; 최안나, 2007; 조미숙, 2016). 따라서 어린이집 여건을 고려한 독립된 낮잠 공간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론과 시사점을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아를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도시 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지역별로 확대함으로써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낮잠양상,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의 일반화된 경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만 1세-만 2세 영아의 어린이집 낮잠양상을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낮잠양상을 연구하여 영아와 유아의 낮잠양상을 비교, 분석해보는 연구가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큰 설명력은 어린이집 낮잠양상의 하위요인 중 수면 중 각성과 낮잠시작 그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성 기질로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는 영아의 낮잠양상 중 수면 중 각성의 과정을 연구자의 직접 관찰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면담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영아의 수면양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고은주(1993). 유아의 기질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적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희(2010). 영아의 사회·정서적 적응과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영희(2008). **생명과학대사전**. 서울:아카데미서적.
- 강문희, 임미혜, 정정옥, 김광자(2015). **영아발달**. 파주: 교문사.
- 강지현, 오경자(2010).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 발달경로에 미치는 기질의 효과-잠재 성장 혼합 모형분석을 적용한 단기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875-894.
- 강현경, 조형숙(2008). 유아의 문제행동 대한 부모-교사 간의 평가간의 차이비교. **미래유아교육학회**, 12(2), 171-193.
- 김난영(2000).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과 유치원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난영, 신유림(2001).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난실, 조혜진(2007). 영아의 기질적 특성과 기질에 따른 놀이행동분석. **유아교육학회지**, 11(1), 237-256.
- 김병우, 류지근, 박우진, 박계원, 김미정, 임지은, 백대현, 최재덕, 최윤희, 이가현, 이관, 김덕수(2002). 수면량과 집중력 상관관계. **동국의학**, 9(1), 149-159.
- 김병화(2017).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영아 및 교사 관련 변인의 영향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숙(2005). 아동의 기질과 부/모 애착, 문제행동과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인자(2001). 여성의 수면장애와 우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수(2003).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보육교사의 요구조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기(2006). 수면과 인지기능. **한국심리학회**, 6(1), 26-27.
- 김진욱(2014). 영유아의 수면양상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한국가정학회지**, 32(2), 41-52.
- 김진욱(2015).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4세 유아의 낮잠과 야간수면과의 관계. **한국인간발달연구학회**. 22(1), 1-120.
- 김영주(2012). 야간수면환경변화가 영아의 수면의질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6(2), 8-21.
- 김유미(2010). 어머니의 행복감이 영아의 사회 정서능력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10). 영아의 기질과 교사의 지도방법이 보육시설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2009).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 변인, 아동의 성,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11). 수면이 부족한 아이들, 중앙일보 3/11.
- 김수정(2015). 유아의 수면 습관이 인지,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 19(3), 319-341.
- 김수정, 광금주(2007). 영아기 기질의 발달변화와 영아기 사회적 부적응 행동 간

- 관계초기 기질특성과 기질의 변화 패턴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28(6), 183-199.
- 김연수, 광금주(2016). 영아기 기질의 변화가 아동초기 외현화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정적정서와 조절을 중심. **한국심리학회: 발달**, 29(3), 95-111.
- 김유라, 이경숙(2011). 학령기 아동의 전반적 수면실태, 수면문제행동, 비만과 관련성 연구. **재활심리연구**, 18(2), 87-109.
- 김윤희(2018).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수면패턴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45-73.
- 김윤희(2015). 만4세 유아의 야간수면길이와 문제행동 관계. **유아교육학회** 35(1), 351-375.
- 김향, 이소은(2014).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학회**, 18(1), 123-146.
- 광금주, 김연수(2016). **영아의 발달**. 서울: 학지사.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 지도서 6**. 교육과학기술부.
- 권수진, 오세니, 이상희(2016).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 변인연구: 유아변인, 어머니 변인, 또래관계 변인. **미래유아교육학회**, 23(4), 385-406.
- 권정윤, 안혜준, 손승민, 권희경(2017). **유아문제행동지도**. 서울: 학지사.
- 권정윤, 윤주희, 김소희(2012). 예비유아가 경험한 유아문제행동지도에 대한 어려움 및 요구. **유아교육학논집**, 16(2), 265-288.
- 권혜진(2018). 교사의 정서지능과 문제해결능력이 영유아 문제행동
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권혜진(2013). 영유아교사의 반응성이 문제행동지도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학회, 31(1), 1-9.
- 나양균(2006). 영아의 사회·정서능력과 기질 및 애착 간의 관계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영균, 이영환, 한지현(2006). 만 1세 영아의 기질과 사회 정서능력 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44, 19-33.

남옥선(2007). 음악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25-36개월 영아를 중심으로. 음악치료교육연구, 4(2), 18-40.

노혜환(2016). 영아의 정서조절이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희연(2014). 어린이집 영아반 하루일과의 의미 탐색: 0, 1세 영아반의 배변 및 기저귀갈기, 낮잠자기, 간식 및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 18(4), 457-478.

도현주(2009). 유아 수면의 질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경희(2012). 어린이집 만 2세 학급 영아의 하루 일과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국 수면의학회(2011). 수면장애의 국제 분류. 제2판 진단 및 부호편람 서울:대한 의학회 서적.

보건복지부(2011).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 서울: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7). 2017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센터(2013a).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서울: 보건 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센터(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0-2세 영아 보육프로그램의 이해. 서울: 보건복지부.

박선미(2013). 유아교사의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관계, 소진감 간의 관계. 아동교육, 22(1), 21-32.

박은영(2000). 영유아의 기질과 적응·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윤자, 이대균(2012). 영아반의 낮잠시간이 갖는 의미 고찰- 만 1세와 만 2세 영아반을 중심. **한국 영유아보육학, 16(2), 187-214.**

- 박남희, 이대균(2014).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과 보람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3(2), 41-69.
- 박윤조, 김성현(2016). 유아의 자아존중감, 탄력성 및 문제행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4), 227-244.
- 박세미(2017). 만 3-5세 유아 수면의 질과 식습관 및 공격성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인(2016). 어머니 심리건강과 모-아 수면의 질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정인(2014). 어머니와 영아의 수면문제가 영아의 문제행동 및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아 애착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4), 125-143.
- 박혜원(2011). 유아의 기질 및 기질에 대한 어머니 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 매개변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준(2018). 낮잠시간에 교사가 불러주는 자장가 심리적 건강성, 영유아-교사 애착안정감 및 관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사쿠라이 다케시(2018). **수면의 과학**. 장재순 역 (2018). 서울: 을유문화사
- 서소정(2009). 영아의 보육기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영아 발달기질 교사-영아간의 상호작용 어머니의 양육 보육신념과 적응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 16(4), 259-288.
- 서수경(1993). 유아의 기질과 행동 성차에 관련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희, 이미숙(2012). 유아 활동성기질과 자기조절과의 관계 어머니-유아-교사 관계의 중재 효과. **가정학회**, 30(2), 27-46.

- 서현주(2014). 설문조사로 알아본 한국 영유아 수면실태. 을지대학교 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가희(2012). 어린이집 교사와 영유아에게 낮잠시간이 가지는 의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나리(2016). 초임교사의 유아문제행동 지도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진영, 김규수(2012).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유아 교사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345-365.
- 송진영, 송진숙(2015). 학령전환기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1(3), 85-102.
- 송진숙, 권희경(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문제행동의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07-225.
- 송혜선(2005). 좌절상황에서의 걸음마기 유아의정서조절 어머니 상호작용의 중재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나나, 박보경, 김민주, 윤기봉, 윤선영(2017). 유아기 수면문제 실행기능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 38(3), 33-48.
- 신지연(2004). 2세 영아의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복합 애착과 사회.정서적행동.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지연, 최석란(2005). 2세 영아의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복합 애착과 사회 정서적행동. **아동학회**, 26(1), 137-154.
- 신희남(2011). 보육교사가 지각한 영아의 기질과 교사의 지도 방법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인지발달중재학회**, 2(1), 79-98.
- 심숙영(2013). 영유아 사회정서 행동 1 진단 평가 및 개별화 교육 활동. 서울:파란 마음.
- 신유림(2008). 유아의 또래 공격성 피해와 자아개념,과잉행동성,내재적 외현적 문

- 제와의 관련성. **대한가정학회**, 46(7), 85-93.
- 오수경(2010). 자연 친화체험 활동이 영아의 지각운동능력 및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용(2015). 유아기질과 교사-유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17(3), 95-118.
- 유수옥(2012). 유아 수면의 질이 정서조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유주연(2016). 영아기질과 영아-교사 관계가 또래관계형성의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나경(2005). 모성우울이 영아의 기질과 수면 모성수면과 자존감 및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디지털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유혜선(2014).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교사-영아관계가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3(3), 165-190.
- 이경숙, 박진아(2016). 한국판 아동 수면습관척도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재활심리연구**, 23(1), 173-185.
- 이선영(2006).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간의 관계.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주(2013). 영아와 어머니 및 교사의 기질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주(2004). 어린이집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만1세 영아반 체험연구. **열린유아교육 연구**(9)9, 169-193.
- 이수정(2011). 영아의 기질 및 애착과 어린이집에서의 행동문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슬기(2008).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실제.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영, 임춘금(2007). 어머니와 보육교사가 지각한 영아의 기질에 관한 연구. **교과교육연구**, 11(1), 257-275.
- 이순자, 유슈옥(2012).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동향과 유아문제행동관련변인 분석-국내학회지 및 학위논문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16(6),127-157.
- 이상봉, 방명애, 김은경, 박지연(2014). **정서 및 행동장애** (제2판). 서울: 학지사.
- 이찬숙, 현은자(2008). 유아기질 사회적 유능감 감성지능 도덕성 및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 29(3), 223-238.
- 이찬숙, 현은자 (2008).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변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유아교육연구**, 28(3), 51-70.
- 이희정, 윤갑정, 전태숙, 문현주(2015). **영아발달**. 파주: 양서원.
- 염세진(2014). 영아의 기질 및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아버지 양육 참여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회**, 87(1), 29-49.
- 윤세영(2017). 영아의 보육 이용경험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영아 사회 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현수, 강지현, 오경자(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의 안전성: 1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30(2), 617-627.
- 육아정책연구소(2013a).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중앙육아종합센터.
- 육아정책연구소(2013b).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교사용 지침서. 중앙육아종합센터.
- 원영미(1987). 유아(3-7개월)기질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논집. 제22집.
-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 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임민영(2016). 영아 기질과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심, 정정희, 임민정(2017). **영유아기 건강교육**. 서울: 공동체.

- 임원신(2006).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결자.송지호.유일영.박인숙.박은숙.김미원.김희순.신희선(2005).**(가족중심의) 아동 간호학**. 서울:현문사.
- 조미숙(2015).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경(2008). 유아의 기질과 스트레스가 수면문제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숙, 김일옥(2015). 영아 수면건강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아동간호학회, 21(1)**, 11-19.
- 장숙(2011). 영아의 수면 건강교육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유진, 이강이(2014). 영아의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부정정서간의 자기 회귀 교차 지연 효과검증. **유아교육학회, 34(3)**, 67-84.
- 전홍주, 최유경, 최항준(2013).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영아의 사회성 발달간의 관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회, 17(3)**, 365-384.
- 전미경(2003).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 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형희, 최경순(2001). 아동의기질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가정학회, 21(1)**, 89-95.
- 정미숙(2007). 교사-영아의 애착안정성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1988). 유아의 행동문제. 한국아동학회지 제 10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조복희(2014). 아동발달. 서울 : 정민사.

- 주재란(2015). 영아 교사 간 상호작용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간의 관계. 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해연, 이기숙 (2014).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5(3), 115-136.
- 조해연(2014).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희숙(2008). 유아 수면의 질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최경애(2002). 영아보육시설 평가기준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안나(2007). 영아보육시설의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2012).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정서조절전략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 인지능력의 영향력. *유아교육학논집*, 16(1), 235-253.
- 천희영(1992). 한국아동의 기질유형화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영례, 고경필(2007). 영아 문제행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한국영유아보육학**, 48, 35-57.
- 한진규(2006). 잠이 인생을 바꾼다. 서울: 팝콘북스.
- 홍성호, 강혜원, 강기섭(2016). 보육교사의 영유아문제행동 인식 및 지원전략과 실행수준. *교과교육연구*, 22(1), 173-201.
- 황선영, 오재연, 김경란, 남민우(2012). 첫 입소시기에 따른 만 2세 영아의 보육

- 적응과정 연구: 사회 정서적 유능성, 외현적 내면적 문제행동, 조절문제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11(1), 149-152.
- 황혜정(2016). 유아의 수면습관과 식습관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 23(2), 299-318.
- Acebo, C., Sadeh, A., Seifer, R., Tzischinsky, O., Hafer, A., & Carskadon, M. A. (2005). Sleep/wake patterns derived from activity monitoring and maternal report for healthy 1- to 5-year-old children. *Sleep*, 28, 1568-1577.
- Achenbach, T.M., Edlbrock, C.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 Achenbach, T.M., McConaughy, S.H., & Howell, C.T.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 and emo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 Arnold H. Buss, Robert Plomin, and Lee (1998). Willerman, *The inheritance of temperaments*' University of Texas.
- Bates, J. E., Viken, R. J., Alexander, D. B., Beyers, J., & Stockon, L. (2002). Sleep and adjustment in preschool children: Sleep diary reports by mothers relate to behavior reports by teachers. *Child Development*, 73(1), 62-74.
- Balleguier, G. (1988). What is the best mode of day care for young children: A French stud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33, 41-65.
- Benedicte de bysson-Bardies (2005). 강옥경, 김영순 역 (2017). **영아의 언어 이해**. 서울: 학지사.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lvin, J. D., Collie-Akers, V., Schunn, C., & Moon, R. Y. (2014). Sleep environment risks for younger and older infants. *Pediatrics*, *134*(2), 406-412.
- Cremone, A. Desiree M. de Jong, Lauri B. F. Kurdziel, Monique k. LeBourgeois, P. Desrochers, Aline Sayer, Renecca M. Spencer, and Jennofer M. McDermott.,(2017). "Sleep tight, act right: Negative affect, sleep and behaviorproblems during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 David R shaffe(2005). 송길연, 이지연 역(2008). **사회성격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 El-Sheikh, Mona. Arsiwalla D. Dilbur, Lori Staton, W. J. Dyer, and Brian E. Vaughn. (2013). "Associations between preschoolers' daytime and night time sleep parameters". *Behavioral Sleep Medicine* 11: 91-104.
- Fullard, McDevitt, S. C & Carey, W. B. (1984). Assessing temperament in one to three years of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 205-217.
- Fox, N. A., & Field, T. (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preschool entry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4), 527-540.
- Karen Glsnz, Barbara K. Rimer, France Marcus Lewis(2009). 유태균, 유혜라 역. **건강행동과 건강교육**. 서울:군자출판사.
- Kauffman, J. M. (1997).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of childrenand youth(6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 Kodama, Y., Asaoka, S., Abe, T., Matsuura, N.,Kagimura, T., Shirakawa, S., & Inoue, Y.(2012). Relationship between napping patternand nocturnal

- sleep among Japanese nursery school children. *Sleep Medicine*, 13, 107–110.
- Lavery, S.(2003). **잠의 치유력**. 김병후 역(2003). 서울: 이채.
- Leach, P.(2000). *Your baby & child from birth to age five*. New York, NY: Knopf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 (3), 386–401.
- Putnam,S.P.,&Stifter,C.A.(2002). Development of approach and inhibition in the first year: Parallel findings from motor behavior, temperament ratings and directional cardiac response *Developmental Science*, 5(4), 441–451.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4(2), 329.
- Sadeh, A., Gruber, R. & Raviv, A.(2002). Sleep , neuro behavioral functioning, and behavior problems in school-age children. *Child Development*, 73(2), 405–417.
- Salzarulo, P., & Chevalier, A. (1983). Sleep problems in children and their relationship with early disturbances of the waking-sleeping rhythms. *Sleep*, 6 (1), 47–51.
- Scharf, R. J., Demmer, R. T., Silver, E. J., & Stein, R. E. (2013). Nighttime sleep durat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

-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34(6), 384–391.
- Taggart, A. L.(2003). An Observatio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Aggressive Behavior, and Cortisol Secretion in Preschool-age Children within a Child Care Environment.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Thomas, A., Chess, S., & Birch, H. 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 in temperament.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Gimpel, G. A., & Holland, M. L.(2007). 박명애, 이효신 역(2007). **유아기 정서 및 행동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 Garside, R. F., Birch, D., Scott, M., Chambers, S., Kolvin, I., Tweddle, E. G., & Barber, L. M. (1975). Dimensions of temperament in infant 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6, 219–231.
- Ward, T. M., Gay, C., Alkon, A., Anders, T. F., & Lee, K. A. (2008). Nocturnal sleep and daytime nap behaviors in relation to salivary cortisol levels and temperament in preschool-age children attending child care. *Biological research for nursing*, 9(3), 244–253.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nfants' Temperament and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on Social and Emotional Problematic Behaviors

Kim, Mi-Yeon
Major in Child care Education,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Lifetime Welfare
Sung 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infants temperament and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on social and emotional problematic behaviors by looking into the difference in infants temperament,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social and emotional problematic behaviors by age and sex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infants temperament,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and social and emotional problematic behaviors.

Based on aforesaid objectives of the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issues were set forth:

1. What are the infants' temperament,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social and emotional problematic behaviors, and general tendencies?
2. What is the difference in infants' temperament,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social and emotional problematic behaviors by age?
3. What is the difference in infants' temperament,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social and emotional problematic behaviors by gender?
4. What is the relationship among infants' temperament,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social and emotional problematic behaviors?
5. How would the infants' temperament and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affect their social and emotional problematic behavior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investigation through survey of 300 infants, who were 1 to 2 years old at the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and selected on the basis of convenience sampling, by using the questionnaires rated by child care teachers.

For the research tool, we adopted the EAS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scale, which had been developed by Buss and Plomin (1984). and used by Kim Byeong-Hwa (2017). to measure the temperament of infants. And we adopted the CSWSn (Children's Sleep Wake Scale-nap version) scale which had been developed by Taggart (2003). and used by Im Min-Yeoung (2016). to measure the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Moreover, we adopted the ITSEA (Infant Toddler Social-Emotional Assessment) scale which had been developed by Briggs-Garter, Jones and Little (2003). and used by Roh Hyeo-Hwan (2017). to measure the social and emotional problematic

behaviors. In this study, only the questions related to social and emotional problematic behaviors were used, excluding the questions associated with positive interactive behaviors.

To analyze the data in this study,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First, the general trends of infant temperament,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and social and emotional problem behaviors were found to be higher than the average in terms of emotional temperament, active temperament, and social temperament according to the infant temperament scale. Based on the 6 point scale of the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the overall score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and the sleep maintenance was lower than the average. And social and emotional problem behaviors, Depression, atrophy, general anxiety, separation anxiety, and rejection of new behaviors were found to be lower than average, and activity, impulsivity, aggression and resistance in external problem behavior were lower than average.

Second, according to age, temperament,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and social and emotional problem behaviors, there were more negative emotional temperament compared to 1 year old and 2 years old, The active temperament appeared more than 2 years old and 1 year ol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temperament by ag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according to the

age of the infant, bu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leeping awakening among the sub-areas of the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In the daycare center, The process was found to be stab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o – emotional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the age of infant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xternal problem behaviors.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motional temperament, active temperament, and social temperament of the infant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verall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according to the sex of infants Howev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leep termination among subscales of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It was found that the girl was well aware of the end of the nursing time and the end of slee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and emotional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gender, and boys had higher social and emotional problem behaviors than girls. In internal problematic behavior, girls showed lower rejection of new things than boys. In external problematic behaviors, activity, impulsivity, aggression, and resistance were higher than girls.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 temperament and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negative emotional temperament, active temperament and nursing home nursing pattern were found to be negatively correlated. There was a statistically correlation between social temperament and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 temperament and social and emotional problem behavior, negative emotional temperament and active temperament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and emotional problem behaviors, and social temperament and social · emotional problem behaviors are negative There is a correl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and the social and emotional problem behavior, it was found that the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and the social and emotional problem behaviors were negatively correlated.

Fifth, the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and nap pattern in daycare center on social and emotional problem behaviors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sleep arousal, nap start, emotional temperament, and active temperament. Emotional temperament, nap start, sleep arousal, and social temperament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internal problem behaviors. For the external problematic behavior, nap initiation, active temperament, sleep arousal, and emotional temperament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부 록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낮잠양상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에서 보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미연입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의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의 기질과 영아의 어린이집에서의 낮잠양상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의 각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평소 대상 영아에 해당하는 문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응답이 빠진 설문지는 연구에 사용할 수 없으니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지도교수:황인애

석사과정:김미연

*** 영아에 대한 일반적 사항**

1. 영아의 성별은?	① 남아	② 여아
2. 영아의 연령은?	(만 _____ 세 / 총 _____ 개월)	

1. 영아의 기질

▣ 다음은 선생님이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 내용이 해당 영아의 평소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2. 자주 우는 편이다.					
3. 감정에 쉽게 좌우된다.					
4. 화를 잘 낸다.					
5. 잘 칭얼대고 운다.					
6. 화가 나면 심하게 화를 낸다.					
7. 혼자 노는 것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8. 매우 사교적이다.					
9.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10. 낯선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한다.					
11. 친구를 쉽게 사귀다.					
12.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13. 혼자서 놀이하고 지내는 편이다.					
14.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					
15.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16. 항상 활동적이다.					
17. 낮잠을 잔 후, (일어나자마자) 활동적이다.					
18. 움직일 때 대체로 느릿느릿 움직인다.					
19. 활동을 할 때 에너지가 넘친다.					
20. 활동적인 놀이보다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2. 영아의 어린이집 낮잠양상

▣ 다음은 선생님이 지각하는 영아의 낮잠시간 수면행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 내용이 해당 영아의 평소 낮잠시간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해당 되는 곳에 체크(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잠시간임을 알렸을 때 영아는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가끔씩 그렇다	때때로 그런 편이다	자주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정신이 말뚱말뚱하다.						
2.바로 잠자리로 간다.						
3.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4.교사에게 투정을 부린다.						

5.선생님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한다. (예:장난감 놀이를 하고 싶어요 /물 마시고 싶어요/책을 읽고 싶어요)						
6.자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려 한다. (예:장난감놀이/책 읽기)						
7.낮잠시간을 좋아한다.						
8.잠자리에 눕혀 달라고 요청한다.						
9.낮잠을 자려고 준비한다.						
10.낮잠을 자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다.						
11.낮잠을 자는 것을 미루려고 한다.						
낮잠시간이 시작되면 영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가끔씩 그렇다	때때로 그런 편이다	자주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2.차분하고 조용하다.						
13.잠자리에서 뒤척인다.						
14.잠자리에서 일어난다.						
15.잠이 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16. 잘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예:선생님이 옆에 있어야 잠을 잔다. 이마를 쓰담아 주어야 잠을 잔다.)						
17.선생님이 “누워서 자” 라고 하는 등 잠자는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해야한다.						
18.불이 꺼지면 금세 잠든다.						

19.옆에서 누가 없으면 잠들기 어려워한다.						
낮잠시간 동안 영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가끔씩 그렇다	때때로 그런 편이다	자주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잠자리에서 뒤척인다.						
21.체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 한 다.						
22.자면서 소리를 낸다. (잠꼬대 신음소리 칭얼거림)						
23.이불을 걷어찬다.						
24.살짝 깬다가 금방 다시 잠이 든다.						
25.한 번 이상 잠에서 깬다.						
26.낮잠시간에 깊이 잠을 잔다.						
낮잠 중에 깬을 때 경우 영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가끔씩 그렇다	때때로 그런 편이다	자주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27.다시 잠들기 어려워한다.						
28.울거나 짜증을 낸다.						
29.잠자리에서 일어난다.						
30.다른 아이들을 깨운다.						
31.다시 잠드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32.선생님을 부른다.						
33.다른 아동의 잠자리로 이동한다.						

34.잠자리에서 굴러다니거나 뒤척이다가 다시 잠이 든다.						
35.스스로 다시 잠이 든다.						
36.깁 상태로 잠자리에 조용히 누워 있다.						
낮잠시간이 끝나고 일어날 때 영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가끔씩 그렇다	때때로 그런 편이다	자주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37.스스로 일어난다.						
38.오후일과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39.잠에서 천천히 깬다						
40.충분히 휴식을 취하여 정신이 맑다.						
41.잠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한다.						

3.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설문지

▣ 다음은 선생님이 지각하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 내용이 해당 영아의 평소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해당 되는 곳에 체크(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조금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의기소침 해 있다.					
2. 우울하거나 슬퍼보인다.					
3. 자주 웃는다.					
4. 다른 아이에 비해 덜 재미있는 아이이다.					

5. 힘이 없어 보인다.					
6. 영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진다.					
7. 이유없이 기분이 안 좋거나 슬퍼보인다.					
8. 무서운 꿈이나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깬다.					
9. 긴장하거나 짜증날 때 면 아픈 증상을 보인다.					
10. 걱정이 많고 심각하다.					
11. 긴장되어 보이거나 경직되어 두려움을 보인다.					
12. 특정한 동물을 두려워한다.					
13.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14. 특정한 물건을 무서워한다.					
15. 특정 장소를 두려워한다.					
16. 친숙한 보육교사가 떠나면 투정을 부리고 불안해 한다.					
17. 타인과 함께 있을 때 교사에게 매달리거나 무릎에 앉으려고 한다.					
18. 부모가 나가려 할 때 울면서 매달린다.					
19.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					
20. 아이를 안아주지 않으면 가까이 접근하려 한다.					
21. 새로운 장소에 가면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22. 새로운 상황에서 조용해지거나 덜 활동적이 된다.					
23. 낯선 어른을 보면 부끄러워한다.					
24.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부끄러워한다.					

25. 주의산만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못 한다.					
26. 자주 다치기 때문에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가 없다.					
27. 자기포레 아이들에 비해 행동이 빨라서 이 놀잇감에서 저 놀잇감으로 잘 옮겨간다.					
28. 쉬지 않고 움직이는 편이다.					
29. 놀이할 때 과잉행동을 한다.					
30. 크게 소리치거나 비명소리를 내기도 한다.					
31. 순종하지 않고 반항한다.					
32. 심하게 떼를 쓴다.					
33. 자기가 힘을 휘두르려 한다.					
34. 어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란을 피운다.					
35. 자신의 뜻이 좌절될 때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36. 비겁하게 행동을 한다. (예:나쁜 짓을 하고 숨긴다.)					
37. 부모를 때리고 물고 발로 찬다.					
38. 고의적으로 다른 친구를 아프게 한다.					
39. 자기가 노는 곳이나 놀이집단에 다른친구가 놀지 못 하게 한다.					
40. 다른친구를 놀린다.					
41. 다른친구를 괴롭히거나 못 살게 군다.					
42. 파괴적이다 고의적으로 물건을 부수고 못 쓰게 만든다.					
43. 고의적으로 교사를 아프게 한다.					

44. 다른친구를 때리고 밀고 아프게 한다.					
45. 고집이 세다.					

■ 끝까지 설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